Weekly 공감

COLORCODE® 칼라코드팝으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NO.232
Korea.kr/gonggam
2013.11.11

박근혜 대통령 서유럽 순방… '문화·세일즈 외교' 빛나다

기획특집 실패 딛고 재기에 나선 중소기업인들

중점기획 한국의 꽃과 나무… 아름다운 우리 야생화

죽도에 핀 '재기의 희망'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원장

"수차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겪었습니다.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407번지에 위치한 죽도,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3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이대로 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돌려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칼을 갈며 준비했습니다. 재창업에 도전해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성공하고 나니 저처럼 실패한 다른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삶을 놓고자 했던 죽도에 그들을 위한 쉼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을 설립한 전원태 엠에스 코프(MS CORP)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은 사업에 한번 실패한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실패한 상처를 치유하고 원망과 분노를 희망과 용기로 되돌려놓자는 취지로 2011년 8월 세워졌습니다. 대다수가 창업을 장려하는 데 관심을 가졌지 그 후 실패한 기업인들에 대해선 무관심한 것이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전원태 회장이 저와 의기투합해 사재를 털고 본격적으로 기업인들의 재기를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대표적 프로그램은 4주 동안 진행되는 '힐링캠프' 입니다.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이 힐링캠프에 참여해 죽도에 들어오면 먼저 담배, 술, 휴대폰, TV 등이 다 금지됩니다. 좋은 숙소를 뒤로하고 1인용 텐트에서 숙박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시작됩니다. 왜 사업하려 하는지, 기업을 경영한다는 의미가 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지요. 많은 기업인들이 이곳에 들어오기 전엔 "난 잘했는데 그저 운과 환경이 나빴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찬찬히 돌아보고 그런 생각을 반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엔 부도를 맞은 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거의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양지로 나와 재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겪은 기업인들의 경영 노하우나 경험들을 되살려서 재창업에 성공한다면 사회에 더없이 좋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재도전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힐링캠프 6기까지 참여한 99명 중 45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재창업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해체됐던 다섯 가족은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업인은 "내 인생에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도난 것이 차라리 축복이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업가정신과 인생의 참된 의미,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됐다는 소감이었습니다. 제겐 그런 한마디가 제일 큰 보너스입니다.

부도를 맞은 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거의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재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를 겪은 기업인들의 경영 노하우나 경험들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를 살려 재창업에 성공한다면 사회에 더없이 좋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재도전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G

20

54

10

46

기획특집

오뚝이처럼 재기에 나선 중소기업인들

일러스트 · 이우정
23

중점기획 | 한국의 꽃과 나무

박근혜 대통령 서유럽 순방

표지이야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영국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에서 열린 '영국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미래 비전 나누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자'는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 · 연합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 11.1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 02-3704-9887
구독관련문의 ☎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독자마당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18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답글

230호 〈빅데이터 '활용 강국' 향한 거점 마련〉 기사를 읽고

최석원(부산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의 역할은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대용량 데이터를 연계해 공익형 서비스를 발굴해 내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경제 활동의 토대로 발전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ㄴ **답글**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를 만든 배경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과 인력 양성에 있습니다. 예컨대 인력 양성 측면에서 보면 대학교, 대학원 빅데이터 과정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서버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 각 대학마다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실제 활용도, 이용행태 등의 피드백을 받아 차차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준욱 사무관(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

230호 기획특집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수기〉 기사를 읽고

조향원(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지방정부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SNS 등을 활용해 홍보가 좀 더 활발히 이뤄진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ㄴ **답글** 지방자치제도 이후 정책 홍보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별로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추진 사업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이명진 사무관(안전행정부 홍보담당관)

231호 〈아기 원하는 난임부부 도와드립니다〉 기사를 읽고

정길연(전남 무안군 무안읍)

난임부부 지원 관련 글을 보고 난임으로 고생하는 동생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신체적 힘겨움과 매번 지출되는 만만찮은 비용에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 안아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ㄴ **답글** 난임시술을 통해서만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부에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시술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담을 경감시켜 부부가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하진 사무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배추 농민들의 땀이 배어 있는 '김치와 김장문화'

'김치와 김장문화'가 유네스코의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북 괴산의 한 배추 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배추 농사를 짓고 있다는 정순천(60) 씨를 만났습니다. 정 씨는 "해마다 널뛰는 배춧값에 울고 웃지 않으려고 4년 주기로 가격을 정해 놨는데, 올해처럼 배춧값이 하락하면 도시 소비자들의 주문 취소가 이어져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정성껏 지어도 가격 흥정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맛있는 김치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배추 산지 농민들의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박미숙 기자

'댓글에 답글' 코너

〈위클리 공감〉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www.korea.kr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gonggam.korea.kr
위클리 공감 블로그	koreablog.korea.kr
위클리 공감 트위터	@weeklygonggam
위클리 공감 페이스북	www.facebook.com/wegonggam

알림

고속도로 졸음쉼터 UCC 및 표어 공모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UCC, 예방표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단, UCC 부문은 3인 이하 팀 가능)
응모주제 ▶졸음쉼터 UCC :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인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홍보하는 동영상
▶졸음운전 예방 표어 : 졸음운전 예방(근절) 및 졸음쉼터를 홍보하는 내용의 표어
시상내역 ▶UCC 최우수상(1편) 상장 및 상금 300만원
▶표어 최우수상(1편) 상장 및 상금 50만원
※우수, 장려, 입선 등 그 외 시상내역은 홈페이지(contest.ex.co.kr) 참조.
응모일정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응모방법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응모
문의 공모전 사무국 ☎ 070-7878-8670

관세행정데이터 활용 앱 아이디어 공모전

관세청은 관세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앱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자격 관세행정데이터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일반 국민(공무원 포함/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응모주제 관세행정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
시상내역 상위 7개팀을 선정 (총상금 670만원)
▶최우수상(1팀) : 관세청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2팀) : 관세청장상 및 상금 100만원
※ 세부 시상내역은 홈페이지(www.customsidea.kr) 참조.
응모일정 11월 22일까지
응모방법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응모
문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02-3416-5142, jskim@kctdi.or.kr

낱말맞히기

1				2	
		3		4	5
6			7		
			8		
		9			
10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기 232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1월 18일(월)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풀이

1 전문가, 직업 선수. OO야구.
4 군(軍) 교육기관이나 사관학교 등의 학생을 가리키는 말.
6 스무 번까지 질문하면서 문제의 답을 알아맞히는 놀이.
8 처음으로 인사할 때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 주는 것.
9 신선이 먹는 음식. 불교 수도자들이 참선할 때 먹던 건강식.
10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해 나가는 데 걸리거나 막히는 장애물. "연대보증 면제, 구조개선 등으로 재창업 의욕의 OOO을 없앴다."

세로 풀이

1 문화 대국, 한류 전파, 박근혜 대통령 문화외교, 엘리제궁…, 어느 나라일까요?
2 거의 죽다가 다시 살아남.
3 일하느라 힘을 들이고 애를 씀. "연일 OO가 많으십니다."
5 "도로명+건물번호로 표기된 OOOOO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7 철도나 도로 등이 새로 놓였을 때 하는 의식.
9 선사시대의 돌기둥을 세운 거석(巨石) 기념물. 멘히르(Menhir).

〈위클리 공감〉 230호(10월28일) '공감 낱말맞히기' 정답
가로 **1** 주례사 **3** 플러스 **4** 금리 **6** 수상 **8** 당첨 **9** 화전민
세로 **1** 주스 **2** 사투리 **3** 플래시몹 **4** 금상첨화 **6** 수당 **7** 비타민

〈위클리공감〉 230호 낱말맞히기 당첨자
김종수(세종시 나리로 38) 김태훈(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양은경(경북 문경시 흥덕동) 최경진(서울시 노원구 마들로)
최성효(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우 : 110-360)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1월 4일 오후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위해 엘리제궁 내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창조경제·금융산업 협력에 의견 접근

프랑스 공식방문·영국 국빈방문… 정상회담서 '한반도 프로세스' 지지 이끌어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일 서유럽 순방에 나서 프랑스 공식방문에 이어 영국을 국빈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한·프랑스, 한·영 정상회담을 통해 신성장동력 공동 창출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양국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있어 훌륭한 동반성장의 파트너임을 확인하고,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도 올렸다.

한·프랑스 정상회담

중소·중견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내년 시범추진 합의

박근혜 대통령은 서유럽 일정의 첫 방문국인 프랑스에서 교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 대통령은 또한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골자로 한 18개 항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하고 문화협력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상회담 및 오찬 박 대통령은 11월 4일(이하 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잇따라 갖고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교역·투자 확대, 문화융성을 위한 창조문화산업 및 문화교류 활성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문화융성 및 평화통일 기반구축 실현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인 프랑스와 우정과 신뢰,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기업 진출 편의와 관심 분야 협력을 제고하면서 교역 규모를 늘려나가는 한편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교역·투자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양국 간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의료 ▶에너지·환경 ▶로봇·자동차·기계 ▶소재·나노 ▶정보·통신 등 5대 분야에서 '한·불 공동 기술개발사업'의 시범적 추진에 합의하기로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프랑스의 한결같은 기여를 평가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통해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올랑드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외교 정상회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3일 프랑스 현지의 한류 팬클럽 '봉주르 코레'가 마련한 '한국 드라마 파티'에 참석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파리의 유명 관광지인 샹젤리제 인근 피에르 가르뎅 문화공간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2013년 K팝 페스티벌'에서 우승을 차지한 프랑스 현지인들과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어로 "유럽에서 최근 K팝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팬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프랑스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오르세미술관을 찾기도 했다. 세잔과 마네 등 19세기 대표적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관람했다.

동포간담회 3일 르 그랑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한복을 입고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은 독창적이며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가꿔왔고, 현재는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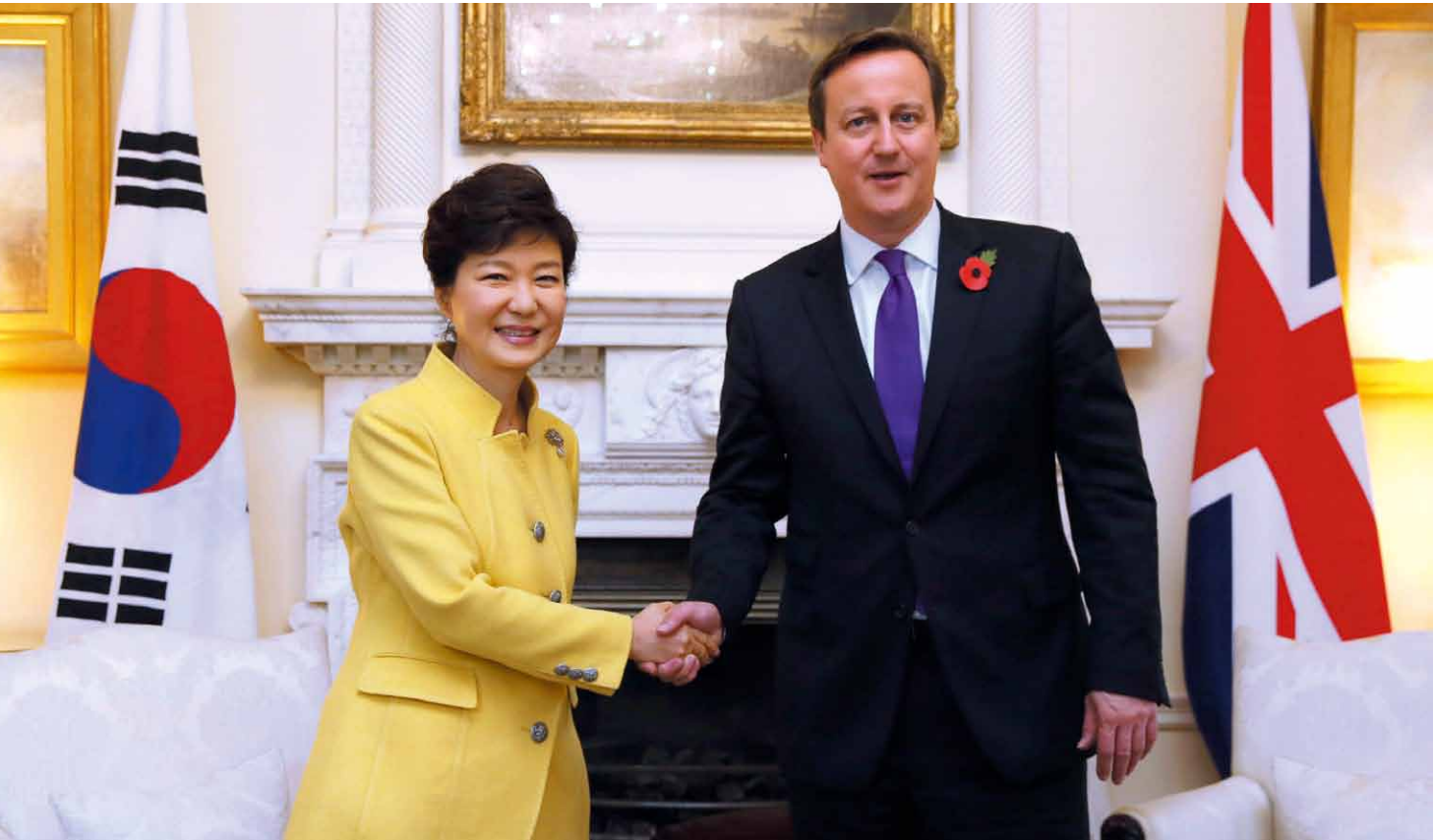
박 대통령은 "당시 그르노블에서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도 저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기업연합회(MEDEF)가 주최한 한·프랑스 경제인간담회에 참석, 프랑스어로 기조연설을 한 뒤 갈루아 프랑스 측 위원장 등의 박수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 파리 마티뇽궁에서 열린 장 마크 에로 프랑스 총리의 영접을 받으며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프랑스는 박 대통령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나라다. 박 대통령은 39년 전 대학을 졸업한 후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가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 이후 갑작스럽게 귀국한 바 있다.

경제인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프랑스기업연합회(MEDEF)가 공동 주최한 '한국·프랑스 경제인간담회'에도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창조경제와 문화산업, 미래 신산업 등 분야에서 양국 경제인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장 마크 에로 프랑스 총리 주최의 만찬 참석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프랑스 공식방문 일정을 마쳤다.

박근혜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11월 6일 오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한·영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한·영 정상회담

무역·투자 2020년까지 두 배로… 18개 분야 양해각서 체결

박근혜 대통령은 4일 프랑스에 이어 두번째 방문국인 영국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정상회담 박 대통령은 6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수교 130주년 및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국빈방문의 의미를 평가하고, 원자력에너지 연구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확대, 금융산업 협력 강화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은 18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외교부 간의 전략 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두 정상은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에서 이러한 협력을 다방면에서 확대·강화하기 위한 '한·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EU가 양국 간 교역·투자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무역·투자 규모를 2020년까지 현재의 두 배로 증가시키자는 목표를 공유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원자력에너지 연구개발 및 원전건설·해체 관련 협력, 문화·창조산업 협력을 비롯해 양국 정부 및 유수의 연구기관·대학 간 기초과학·에너지기술·ICT·문화사업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상호 윈-윈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인권, 분쟁 아래에서의 성폭력 방지, 개발, 기후 변화, 사이버 안보, 중동 문제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채택된 '한·영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녹색건물, 배출권거래제, 탄소포집 및 저장 등 분야에서 양국이 실질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국빈 환영 행사 국빈방문 첫날인 5일 박근혜 대통령은 런던 중심가 '호스 가즈'(Horse Guards) 광장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베푼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영국 왕실이 초청한 모든 국빈은 환영식에 참석한 다음 버킹엄궁에 들어가는 절차를 거친다.

행사가 열리는 호스 가즈 광장은 근위기병대 교대식이 열리는 장소다. 사열식이 진행되는 동안 런던 도심의 그린파크와 런던타워에서는 41발의 예포가 발사되고 근위사단 군악대의 트럼펫 연주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 환영식에 참석한 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내외와 함께 황금장식을 한 왕실 마차에 올라타 버킹엄궁으로 이동했다.

이날 저녁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주최한 만찬에는 공식수행원과 기업인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과 웨섹스 백작(에드워드 왕자) 내외, 글로스터 공작 내외 및 켄트 공작 등 영국의 각계 주요 인사 140여 명이 참석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만찬사를 통해 "수교 130주년인 올해 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회 방문 5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인 노동당의 밀리반드 당수에 이어 집권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의 클레그 당수(부총리)를 접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 당수에게 "올해 수교 130주년에 국빈방문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한국전 참전기념비 기공식에 참석해 양국 우호 관계의 토대가 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게 돼 더욱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밀리반드 노동당수와 면담 시 블레어·브라운 총리 등 역대 총리가 복지정책 확대, 기후변화 논의를 주도하는 등 영국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한국과 영국이 통상·투자·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은 물론 특히 노동당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권, 개발, 환경, 사이버스페이스 등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포간담회 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재영 동포 200여 명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개최하고, 고국과 영국을 잇는 가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영동포들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력의 크기만큼,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영국 내 우리 상사 주재원을 비롯한 다수의 중·단기 체류자, 30퍼센트에 이르는 유학생 비율 등 재영 동포사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사서비스를 시행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차세대 동포들이 한민족의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확대를 비롯해 더 나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6일 저녁 세계 금융 중심지인 런던 시티(London City)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7일 오전 여왕 내외와 작별 인사로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쳤다.

박 대통령은 이어 7일 한·벨기에 정상회담, 8일 한·EU 정상회담을 끝으로 6박 8일간의 서유럽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G

글·박미숙 / 김혜민 기자

영국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버킹엄궁에서 미술품들과 그 동안 영국이 한국에서 전달받은 선물들을 함께 구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버킹엄궁 인근 근위기병대 연병장인 '호스 가즈' 광장에서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에든버러 공작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방문국 언어로 연설 감탄과 찬사의 박수

박근혜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문국의 언어로 연설을 하고, 순방국의 격언과 속담을 사용한 박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 호평이 쏟아졌다. 박 대통령은 11월 4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메데프(MEDEF) 회관에서 열린 한국·프랑스 경제인간담회에 참석해 프랑스어로 기조연설을 했다. 11월 5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는 '잔잔한 바다는 능숙한 선원을 만들지 못한다'는 영국 속담을 인용해 연설했다. 이날 저녁,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주최한 국빈만찬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별을 보고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한 영국의 위대한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했다. 서유럽 순방의 주요 장면들을 소개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5일(이하 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만찬사에서 "양국 수교 130주년인 올해 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2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3일 한류 팬클럽 '봉주르 코레'가 마련한 '한국 드라마 파티'에 참석하는 것으로 프랑스에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3 11월 4일 프랑스 파리 개선문 광장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역을 참배하는 박 대통령.
4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5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내외와 함께 왕실 전용 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으로 이동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의 한계 극복해왔다”

주요 외신들, “영어·중국어를 할 수 있는 정상은 드물다” 외국어 실력 화제

1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6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순방 때마다 문화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11월 6일 런던 시내의 시네월드 헤이마켓 극장에서 개최된 '제8회 런던 한국영화제'에 참석한 박 대통령.
3 11월 4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르노의 전기차 체험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전기차 산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4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3일 프랑스에서 현지 동포 대표 15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화동들의 인사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

전 세계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프랑스의 〈르 몽드〉와 〈르 피가로〉, 영국의 〈더 텔레그래프〉와 BBC 등 해외 유력 언론들이 한국 대통령의 첫 유럽 순방을 의미 있게 다뤘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는 박 대통령이 첫 순방지인 프랑스에 도착한 11월 2일자에 박 대통령과의 인터뷰 기사를 1면과 7면 전면에 게재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전에 청와대에서 〈르 피가로〉와 인터뷰를 가졌다.

〈르 피가로〉는 이 기사에서 “가냘픈 몸매에 수줍은 미소, 그러나 강력한 눈길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청와대 관저에서 불어로 본지 기자들을 맞이했다”고 표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본지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되어 파리를 방문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도 화제를 모았다. 영국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는 박 대통령을 한국에서 여성의 한계를 극복해 온 인물로 표현했다.

이번 해외 순방 기간 박 대통령의 외국어 실력도 화제를 모았다. 〈더 텔레그래프〉는 “박 대통령은 중국 칭화대에서는 중국어로, 미국 의회에서는 영어로 연설했는데 영어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정상은 드물다”고 보도했다.

또한 현지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영국 왕실의 큰 환영을 받은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주최로 열린 공식 환영식과 버킹엄궁 국빈만찬에서 박 대통령은 왕실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프랑스의 통신사 AFP는 박 대통령이 영국 왕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사는 “한국은 영국의 오랜 정치적 우방이자 동맹국”이라고 말한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의 말을 인용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 관계인 만큼 국제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박 대통령의 일대기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1월 4일(현지시간) 박 대통령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BBC는 박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 후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일 등을 비롯해 박 대통령의 일대기를 자세히 소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6일 오전(현지시간) 런던 랭카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한영 글로벌 CEO 포럼·경제통상공동위 전체회의'에 참석,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프랑스 라디오 방송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은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주인공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유학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 된 박 대통령의 스토리는 해외 순방 때마다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다.

글·김혜민 기자

고향 뒷산 그 꽃들처럼 문화융성 꽃피우리라

글과 사진 · 이택주(문화융성위원회 위원 · 한택식물원장)

우리 야생화는 태곳적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귀중한 생명 문화재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유전자원이다. 우리 조상들은 배고프면 산에서 풀을 뜯어먹고 병이 나면 약초를 채취해 치료하며 살아왔다. 이 귀중한 생명자원을 잘 가꾸고 이용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문화융성위원회가 주최한 청와대 '아리랑공연' 식전행사로 우리 야생화를 전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35년간 우리 야생화를 길러오면서 이런 기쁨은 처음이었다. 이번 전시에는 늦은 가을이라 구절초, 감국, 쑥부쟁이와 같은 들국화 위주로 식재되어 아름다운 우리 야생화를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없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공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특히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 야생화에 큰 관심을 보여주어 더없이 기쁜 행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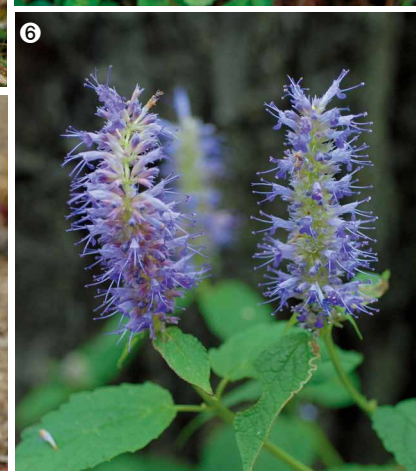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고향이 있다. 고향은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 찾아가 쉬고픈 어머님의 품속과 같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곳이다. 고향에 가면 지금은 아무렇게나 자란 잡목만이 우거져 있어 볼품이 없는 앞산과 뒷산이 있다. 그런 앞산과 뒷산을 간벌해 잡목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그 사이에 우리 야생화, 약초, 산채식물을 정성스럽게 기르며 정자를 세우고 작은 길을 만들면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고향 앞산과 뒷산의 둘레길이며 올레길이 되는 것이다.

노루귀 잎이 노루의 귀를 닮았고 줄기에 털이 많아 추운 날씨를 이겨낸다.

주말이면 심신이 지친 도시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앞산과 뒷산에 올라 정자에 앉아 심신을 달래며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만큼 훌륭한 생활의 쉼터가 또 어디 있을까? 여느 외국의 공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훌륭한 문화공간이 되는 것이다.

고향의 앞산과 뒷산마다 주말농장과 같은 쉼터가 생긴다면 도시 사람들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고향을 찾아서 산채와 약초를 뜯으며 야생화와 곤충, 새와 같은 자연을 접하는 생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거기서 생산되는 야생화를 가져와 도심 주변에 심음으로써 아름다운 도심 주변 경관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고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농촌지역 사람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문화융성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국토는 나무만 보이고 숲은 보이지 않는다. 울창한 삼림과 푸른 초원이 있으며 큰 교목 밑에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관목이 자라고 그 사이사이 야생화가 모여 자라는 것이 참다운 숲의 모습일 텐데, 잡목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우선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만이라도 잡목을 제거해 그 사이에 진달래나 철쭉, 그리고 야생화를 잘 어우러지게 심고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와 새들의 먹이가 되는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심어 사계절 모두 곤충과 새들이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숲을 가꾸었으면 한다.

1 **두메부추** 일반 부추에 비해 잎이 두껍고 육질이 많으며 영양가가 높다. 미국에서는 허브 식품으로 개발돼 종자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2 **얼레지** 잎에 얼룩무늬가 있고 꽃잎이 뒤로 젖혀져 피며 비늘뿌리가 땅 속 25~30센티미터 정도 깊게 들어간다.
3 **괭이눈** 꽃이 필 때 주변의 잎까지 노랗게 변하는 점이 '고양이 눈'을 연상케하는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곤충들에게 멀리서도 꽃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4 **구절초** 토종 국화과 식물로 음력 9월 9일에 마디가 아홉 개가 되며 민간에서 상비약처럼 사용한다.
5 **깽깽이풀** 농번기에 크고 화려한 보랏빛 꽃이 '깽깽이질한다'며 농민들의 질투를 받았던 꽃으로 씨앗을 개미들이 옮겨준다.
6 **배초향** 잎의 성분이 나쁜 냄새를 방어한다 하여 '방아풀', '방애잎'이라 부르며 추어탕을 끓일 때 많이 사용한다. 외국에서는 'Korean mint'라 하여 차로 많이 이용한다.

벌개미취 군락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며 우리나라 중부 이남지방의 산기슭 약간 습기 있는 곳에 잘 자란다.

"처음 보는 우리 꽃을 만나면 마냥 행복"

서로 양보하고 작은 것을 배려하는 야생화들의 성품은 우리 민족 성향 닮아

금강초롱꽃 도라지과의 여러해살이풀이며 우리나라 중부 지방 경기도 가평 명지산, 이북 강원도 오대산, 이북 설악산 및 DMZ 대암산, 가칠봉, 향로봉, 금강산의 높은 지대 산기슭 숲속이나 바위틈에 자란다.

글과 사진 · 김태정(한국야생화연구소장)

우리 야생화를 찾아 국토를 떠돈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땅 한반도의 산과 들, 동해·남해·서해 바다에 떠 있는 수백 개의 각 섬 지방을 망라해 계절따라 갔던 곳도 여러 차례 다시 찾아가기도 했지요. 제법 오래 다녔지만 지금도 우리 국토에서 나는 처음 만나는 꽃들을 만나면 설레고 우리 꽃을 보고 있으면 마냥 행복합니다.

우리 땅의 식물들은 대개 다른 나라 학자들이 찾아 기록했습니다. 1900년 전후부터 1940년이 넘어서까지 특히 일본인 나카이 박사에 의해 많은 식물들이 발견되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 땅의 식물을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발표한 식물도감 류에는 서식 지명이 빠져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중요한 식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라 학자들이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자라는, '우리 식물'이라 일컫는 종은 남북한 합쳐 약 4,500여 종이 됩니다. 외국에서 반입되거나 날아들어온 것 등도 2천여 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풀과 나무 모두 합쳐서 약 6천여 종이 자라고 있으며 이중 70퍼센트는 남쪽에서 자라고 나머지 약 30퍼센트 정도는 북한지방에서 자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의 기록을 자세히 보며 오랜 세월 동안 이들 야생화의 생활상을 관찰하면서 느낀 점은, 긴 세월이 지나면서 종 간의 변이종 등이 생겨났고, 또 일본인들이 발견하지 못한 꽃이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또 종이 너무 귀해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 아직 찾아볼 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생화들은 지역 전설과 얽힌 이야기 품고 있어"

야생화들도 이 땅에 사는 우리 민족과 같이 살면서 민족의 성향을 닮아가는 듯 보입니다. 봄이면 길가에 오순도순 모여 피는 제비꽃, 구슬봉이, 민들레, 할미꽃, 노루귀, 너도바람꽃, 변산바람꽃 등 작은 꽃들이 먼저 햇볕을 받아 꽃이 필 때까지 주변의 큰 풀이나 나무들은 이들 작은 풀들이 빨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드디어 작은 야생화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큰 나무들은 이제 나도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듯 일제히 꽃을 피웁니다. 서로 양보하고 작은 것을 배려하는 성품이 우리 민족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꽃들은 대개 작으며 색깔이 연분홍, 연한 자주색, 연노랑 등 중간 색깔이 많습니다. 이들 작은 우리의 야생화들은 그 지역의 사람이나 전설 등과 얽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외국 꽃들은 대개 줄기의 키와 꽃잎이 큽니다. 요즘 외국 원예종 꽃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서구 쪽의 식물들은 원래 색깔이 뚜렷하고 커 우리 꽃처럼 귀여운 맛이 없습니다. 늘 꽃을 찾아다닐 때마다 우리 꽃이 우리 민족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 들어 전국 각 지방마다 많은 공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화의 입장에서 보면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야생식물들은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도 그 지역의 기후 또는 특성을 가려야 합니다. 남부지방 야생화를 중부지방 약간 높은 곳으로 옮기면 가꾸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남부지방 따스한 곳에 자라는 식물을 중부지방으로 옮겨 심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원래 살던 그 자리를 더 잘 보전해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산과 들에 피어 있는 야생화는 아름답습니다. 보고 있다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촬영한 사진이 150만 컷이 넘더군요. 이들의 삶과 모습을 털끝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종을 분류하거나 그 식물의 특징을 찾아내 봅니다.

이 일은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즐겁고 설렙니다. 지금도 인왕산의 산가막살나무, 덜꿩나무, 팥배나무 열매가 단풍잎 사이에서 붉게 익는 것을 최대한 접사해 찍은 사진을 봅니다. 늘 보던 모습이고 매년 만나는 나무이지만 또 만나면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습니다. 꽃은 이렇게 보는 건가 봅니다. G

1 구절초와 산국 구절초(왼쪽 · 아랫부분)는 국화과 국화속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9~10월에 줄기나 가지 끝에 한 송이 꽃이 하늘을 향해 핀다. 같은 국화속에 속하는 산국(오른쪽 · 윗부분)은 개국화라고도 불린다.
2 산수국 범의귀과의 잎이 지는 떨기나무이며 우리나라 중부지방 강원도, 경기도 이남지역의 산골짜기 바윗돌이 많은 곳에 잘 자란다.
3 해국 국화과의 반나무 비슷한 여러해살이풀이며 우리나라 중부 이남지방의 바닷가 언덕이나 바위틈에 자란다.
4 억새 한반도 전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가을 무렵에 줄기 끝에서 산방꽃차례를 이루어 작은 이삭이 빽빽이 달린다.
5 야고 열당과의 한해살이 기생식물(寄生植物)로 제주도 한라산 남쪽의 넓은 억새밭 억새포기 사이에서 자란다.
6 각시원추리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 내륙지방 산기슭에서 자라며 다른 원추리에 비해 풀잎이 난초처럼 차분하게 휘어져 아름답게 보이는 데서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7 자주조희풀 DMZ나 경기도 산기슭에서 간혹 나타나는 희귀종으로 8~10월에 남청색 꽃이 피며 꽃받침잎이 활짝 벌어진다.
8 솜다리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며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과 중부지방 강원도 설악산, 금강산 일대의 고원지 바위틈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특산종이다.

네 이름이 뭐니?

글과 사진·김민철 (조선일보 기자·〈문학 속에 핀 꽃들〉 저자)

서울 청계천을 걷다 보면 국화처럼 생긴 흰색·연보라색·노란색 꽃들을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꽃들을 흔히 들국화라 부른다. 들국화라고 불러도 틀린 건 아니지만, 들국화는 가을에 피는 야생 국화류를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들국화'라는 종은 따로 없다. 사람들이 들국화라 부르는 꽃들의 실제 이름은 무엇일까.

들국화라 부르는 꽃은 보라색 계열인 벌개미취·쑥부쟁이·구절초, 노란색인 산국과 감국 등 다섯 가지가 대표적이다. 이들 다섯 가지 들국화만 구분할 수 있어도 올 가을 산과 들을 다닐 때의 느낌이 전과 다를 것이다.

요즘 등산하다 보면 산기슭에 작고 노란 꽃이 다닥다닥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도권일 경우 이 꽃은 산국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산 구기동 입구에도, 우면산 곳곳에도 피어 있다.

산국보다 조금 큰 노란 꽃이 감국이다. 산국과 감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꽃의 크기다. 작은 노란 꽃이면 산국, 좀 큰 노란 꽃이면 감국인데 기준점은 지름 2센티미터다. 꽃이 2센티미터보다 작으면 산국, 크면 감국이다. 산국은 50원짜리, 감국은 1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기억하면 좋다. 산국(山菊)은 산에 피는 국화라는 뜻이고, 감국(甘菊)은 꽃잎에 단맛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특히 감국은 꽃을 따서 말리면 국화의 맛과 향을 맛볼 수 있는 국화차로 만들 수 있다.

벌개미취·쑥부쟁이·구절초는 비슷하게 생겨 처음 꽃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하면 야생화 초보 딱지를 뗀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서울 도심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연보라색 계열 들국화는 벌개미취다. 벌개미취는 이르면 7월 말부터 초가을까지 피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졌고, 어쩌다 한두 송이만 남아 있다. 햇빛이 드는 벌판에서 잘 자란다고 벌개미취라 부른다.

야산에 흔한 쑥부쟁이도 꽃이 연보라색이라 벌개미취와 비슷하다. 줄기가 쓰러지면서 어지럽게 꽃이 피는 경우가 많다.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를 허무와 싸우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낸 김훈의 장편소설 〈칼의 노래〉에도 쑥부쟁이가 자주 나온다. "불타버린 대궐과 관청 자리에 쑥부쟁이가 뒤엉켰고 갓 죽은 송장들이 불탄 대궐 앞까지 가득 널렸다"와 같은 식으로, 장기간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그리는 데 쓰이고 있다.

위쪽 작은 꽃이 산국, 아래 큰 꽃이 감국이다.

쑥부쟁이라는 꽃 이름은 '쑥을 캐러 다니는 대장장이(불쟁이)의 딸'에 관한 꽃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구절초는 9월9일(음력)이면 줄기가 아홉 마디가 된다고 해서 구절초(九節草)라 부른다. 흰색이 많지만 연분홍색을 띠는 것도 적지 않다. 구절초는 색깔이 달라 벌개미취·쑥부쟁이와는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다. 또 구절초는 잎이 벌개미취·쑥부쟁이와 달리 쑥처럼 갈라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구별하기가 쉽다.

벌개미취와 쑥부쟁이는 꽃만 보고는 구분하기 힘들고 잎을 봐야 알 수 있다. 벌개미취는 잎이 길고 잎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어 매끄럽게 보이지만, 쑥부쟁이는 대체로 작은 잎에 굵은 톱니를 갖고 있다.

이제 가장 흔한 5대 들국화를 구분하는 법을 알았으니 들국화를 만나면 가까이 다가가 이름 맞히기를 시도하면서 늦가을 정취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G

추운 겨울 더 빛나는 푸르름

글·윤미정(국립광릉수목원 연구원)

늦가을을 지나 겨우내 늘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나무다. 특히 추운 겨울에 유난히 돋보이는 나무가 있다. 늘푸른나무, 상록수다. 이러한 상록수에는 소나무, 전나무, 주목 같은 나무처럼 침엽수들이 대부분이지만 따뜻한 남쪽지방에 가면 후박나무, 굴거리나무, 동백나무들처럼 넓은 잎을 가진 상록수도 있다.

그 가운데 추운 날씨 속에 우뚝 선 소나무는 '한국의 나무'로 인상이 깊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진 나무를 생각해 보면 소나무부터 떠오르게 마련이다. 모진 추위에 더 이상의 생장과 함께 초록을 포기해 버린 나무들 틈에서 독야청청 푸르기 때문인 것도 그 이유이겠다.

소나무는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의 삶 속에 그대로 담겨 살아왔다.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을 치고 솔가지를 매달아 나쁜 기운을 막았다.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살다가 솔가지로 불을 지피고, 나무껍질에서 꽃가루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먹거리를 준다. 죽어서 들어가는 관도 소나무 관을 최고로 치며, 소나무가 있는 산에 묻힌다. 한국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나무의 신세를 진다는 말은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이 소나무를 사랑하여 가슴에 담은 이유는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을 견디며 살아남았음에도 여전히 푸르고 올곧은 그 풍모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 멋진 소나무가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 그대로 변함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숲은 언제나 그대로인 것이 아니어서 변화한다. 이를 생태적 용어로 '천이'라고 한다. 소나무는 자라는 데 햇볕이 꼭 필요한 양수여서 천이 과정의 초기에 있는 나무다.

소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아름답고 올곧게 올라가서 늠름한 금강송은 바람이 많은 강원도, 울진, 삼척과 같은 지역에서 자라는 특별한 생태형이다. 이 소나무의 씨앗을 안온한 남쪽의 바닷가에 심으면 춘양목이라고 불리는 소나무가 된다. 금강송 소나무의 그 장대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올곧은 풍모를 보이는 '한국의 나무' 금강송.

이 소나무들의 천이가 한창 진행되는 자연적인 숲의 흐름을 거슬러 소나무들의 세상을 다시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그 아래에서 견디며 자라고 있는 다른 나무들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또 도시 내에서 소나무를 보고자 한다면 그 어느 산에서 잘 자라고 있던 나무들을 옮겨와야 한다. 또 매년 죽은 가지들을 골라내는 등 꾸준한 관리를 해 줘야 한다.

제 살 곳이 아닌 곳에서 사는 소나무는 더 이상 돋보이지 않는다. 소나무는 그 자리 그 숲에서 그 모습으로, 그렇게 도도히 변화하는 환경과 시대적인 흐름을 느끼며 살아갈 때 진정 그 속기 없는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준다. G

공감포토 6회 다른그림찾기 이벤트

공감포토가 소개하는 사진을 감상하며, 사진 속 다른 부분 3곳을 찾아주세요.
정답을 "다른그림찾기" 라는 제목과 함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1월 17일까지 webmaster@korea.kr 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도서문화상품권(3만원권 / 10명)을 보내드립니다.

민둥산의 은빛 억새물결

해발 1,119m의 정선 민둥산은 전국 5대 억새 군락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가을이 되면 산 정상의 능선을 따라 은빛 억새가 끝없이 펼쳐져 장관을 이룹니다. 매년 10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민둥산억새꽃축제가 열려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진을 감상하시려면 공감포토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photo.korea.kr

이벤트 4회 당첨자 발표

이름	전화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름	전화번호
김재현	010-80**-33**	박진규	010-20**-21**	안시연	010-92**-80**	한상호	010-51**-86**	함미정	010-95**-83**
조학철	010-67**-42**	김은아	010-50**-86**	우혜선	010-24**-61**	박근배	010-73**-50**	송요원	010-23**-95**

오뚝이처럼 일어나리라!
재기 나선 중소기업인들

일러스트 · 이우정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생산하고 일자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마음만큼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산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매우 힘듭니다. 엄청난 빚더미에 눌려 가정마저 해체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한번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려는 기업인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재기한 기업인들이 재창업 · 재생산하고 다시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합니다. 쓰러졌다 일어난 기업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2011년 재기를 다짐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던 재기중소기업개발원 1기생.

"마음을 가라앉히자 희망이 솟았고…"

죽도 재기중소기업개발원 2년… 수료생 138명 중 45명 재기 나서

2년 전 이맘때쯤 열두 명의 사내가 외딴섬에 들어갔다. 경남 통영에서 배로 1시간쯤 걸리는 죽도. 5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다. 그들은 한때 '사장님' 소리를 들었던 전직 최고경영자(CEO)다. 매출 1천억원대 회사를 거느렸던 경영자, 코스닥에 상장한 벤처기업 CEO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실패한 경영자'라는 치욕과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뿐이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0년, 그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책망하며 살았다.

기자가 죽도에 갔을 당시(2011년 11월 29일) 그들은 섬 생활 23일째였다. 죽도에 입도하며 '온갖 근심과 실의에 찌든 얼굴로 난파선을 타는 것 같았다'던 그들의 표정은 밝고 평온했다. 40~60대인 그들은 형광색 점퍼를 입고 수업을 듣고 있었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이 무료로 실시하는 '실패 중소기업 경영자 재기 교육'이었다. 4주간 합숙하며 재기의 의지를 다지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하는 시도였다. 그들이 1기생이다.

생활은 흡사 수도승 같았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연수원 뒷산에 1인용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짧은 잠을 청했다. 따뜻한 숙소가 있었지만 편한 잠을 사양했다. 새벽 6시 기상 노래가 울려 퍼지기 전에 대부분 일어나 섬 앞에 펼쳐진 남해 바다를 보며 명상을 했다. 식사는 오전 8시, 오후 4시 두 끼만 먹었다. 그리고 '명상–경영수업–명상–분임토의–명상'으로 이어지는 생활을 했다.

당시 그들은 기자에게 가슴 아픈 사연을 힘겹게 털어놨다. 침구·화장품 사업을 하던 김성현(가명) 씨는 직원이 900명 넘는 중견기업을 운영했다. 그는 "한때 재벌을 꿈꿨다"고 했다. 하지만 친동생처럼 여겼던 회사 임원이 회사 어음을 사채업체에 넘긴 후 현금을 들고 해외로 도망갔다. 회사는 부도를 맞았다. 김 씨는 "아침에 술, 점심에 술, 저녁에 술로 살았다"며 "그가 가져간 것은 돈이 아니라 내 꿈과 인생"이라고 말했다.

섬유공장을 운영하던 배창호(가명) 씨는 이런 말을 했다. "사업에 실패하면 채무 관계로 얽힌 지인들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사장님 소리 듣다가 망하면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모든 것에 소극적이 되죠. 가족들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데 나에겐 달리 와 닿습니다. 혼자만의 고통이 커지고, 악감정이 생기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재기할 수 없어요."

죽도에 와서 그들은 달라졌다.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한 전직 CEO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 했다. 전 인터넷 벤처기업 대표 박 사장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사회의 패잔병이고 루저인데, 그 실패와 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곳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패배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는 "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해 정말 좋다"고 말했다. 연수생들은 그렇게 절박하게 명상하며 마음의 벼랑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치유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다. 4주간의 변화는 놀라웠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현실이라는 벽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빈털터리였고, 대부분 대표자 연대보증의 덫에 걸려 신용불량자 신세였다. 한번 실패하면 좀처럼 재기할 수 없는 환경, 실패한 경험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 실패 경영자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과 싸워야 했다. 그런 현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 연수생은 "우리는 담보도 없고 신용불량자"라며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다른 연수생은 "현 제도에서는 어쩌면 재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스타트 라인에 서고, 링 위에 오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섬을 떠났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연수원.

2년이 흘렀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죽도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언론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늘었다. 벌써 7기 수료생이 나왔다. 죽도를 거쳐간 수료생만 138명. 재기중소기업개발원 한상하 원장은 "수료생 중 45명이 재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하지만 아쉬움도 많다. 한 원장은 "수료생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명상하고 공부하며 재기의 의지를 다지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고 했다. 그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라며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기에 나선 45명은 지금,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분주히 달리고 있다.

올해 월매출 4천만원 규모의 복지용구 회사로 재창업에 성공한 최봉석(55) 보림제작소 대표는 1기 수료생이었다. 〈**관련기사 32면**〉 2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다. "밤 11시까지 하루 15시간씩 일하는데, 2년 전엔 이만큼 즐겁게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술자리도 시시해서 안 가져요." 무엇이 그의 열정을 되살렸을까? 그는 "자기성찰은 사업 실패로 자신감을 잃은 재도전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며 "죽도에서 풍부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게 돼 재기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최근엔 수료생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사업 교류의 장을 연다. 풍부한 정보를 나누고 인적 네트워크를 다지게 된 것도 크나큰 소득이다. G

글 · 김태윤(이코노미스트 기자) / 사진 · 오상민 기자

“연대보증만 없어도 재기시간 단축”

재창업한 허훈 티피오스 대표 “사업실패 후 연대보증으로 가정 흔들리는 게 가장 뼈아파”

김현동 기자

이어폰 제조회사 티피오스의 허훈 대표와 직원들이 100퍼센트 국내 기술로 만들고 있는 자사 이어폰 제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허 대표는 2009년 파산한 이후 3년 만인 지난해 티피오스를 재창업해 재기의 꿈을 다지고 있다.

“한번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사업이 가장 번창해 200억원 매출을 달성했던 때보다 더 벅차고 감동적이었죠.”

국내 이어폰 제조회사 티피오스의 허훈(56) 대표는 재창업을 한 2012년 4월 15일, 그 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날은 1986년 3월 허 대표가 온 힘을 다해 창업한 ‘SWP신우전자’가 ‘SWP신우테크’라는 이름으로 재기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SWP신우전자가 2009년 5월 파산한 지 3년 만이었다. 올해 3월 회사 이름은 다시 현재의 ‘티피오스’로 바뀌었다.

허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시계회사에서 일했지만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 28세가 되던 해 그는 서울 봉천동의 허름한 건물에서 SWP신우전자를 창업했다. 알람시계용 버저(소리를 내게 하는 부품)를 생산하는 회사였다. 생각보다 사업은 쉽지 않았다.

“시계 회사는 많고, 버저는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 만들어만 놓으면 팔리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더군요.”

창업자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주문받은 제품을 겨우 납품하기에 급급하던 시절, 회사에 반전의 계기가 찾아온 것은 현대전자에서 무선전화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당시 버저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날개 돋친 듯 사업도 잘되고, 2년간의 고생이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오래가진 못했다. 88서울올림픽이 끝나고, 1989년이 되면서 인건비가 급격히 올랐던 것. 가정용 무선전화기를 만드는 회사가 대부분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 가면서 순식간에 물품 주문이 뚝 끊기고, 매출의 90퍼센트가 감소했다.

그러던 중 허 대표에게 다시 천금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 지인의 주선으로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의 통신기기 회사였던 모토로라에 리시버와 버저를 납품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모토로라에 대한 납품을 시작으로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회사는 날개를 달았다. 수입을 하는 기업들은 힘들었지만, 신우전자는 수출이 주된 사업이다 보니 환차익이 발생해 무역 대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 1달러에 880~900원이었던 환율이 2천원까지 올랐다. 자금에 여유가 있자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전혀 영역이 다른 설렁탕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넓혔다. 하지만 이게 부메랑이 될 줄은 그도 몰랐다.

“사업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무조건 확장만 한 것이 실책이었죠. 결국 그러한 것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던 겁니다.”

2008년 결국 유동성 위기가 오면서 회사는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허 대표는 “초창기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연대보증을 서야 했다”며 “회사가 무너지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배우자까지 그 짐을 지게 되면서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돈과 신용, 집도 잃은 허 대표는 파산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족을 생각해 주저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정부에 파산 면책 신청을 했고, 다행히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는 지난해 지인에게서 1억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기금 1억원을 받아 지금의 회사를 설립했다. 초창기에 월 매출 5천만원이던 회사는 현재 월 1억원 매출까지 올라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가양동에 있는 회사를 찾은 날은 마침 사무실 확장 공사 중이었다. 아래 한 층만 쓰다 최근 생산물량이 늘어나면서 한 층을 더 늘렸다. 아래층 생산 공장에선 손으로 꼽을 정도의 인원이 가내수공업 식으로 이어폰을 만들고 있었지만 허 대표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국내 기술 100퍼센트로 이어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달에 1만5천개 정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3만개까지 늘려갈 예정입니다. 음향 튜닝 기술에 대한 27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다시 열심히 하면 곧 재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창업자의 연대보증면제 확대 방안에 대해 반가운 기색을 내비치며 말을 이었다.

“0.1퍼센트도 성공하기 힘든 게 재창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죠. 재기 기업인들의 열정에 정부의 지원이 적재적소에 갖춰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창업자들에 대한 연대보증면제 확대는 중소기업인들이 재기하는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G

글·박미숙 기자

창업 실패부담 완화 위해 연대보증면제 대상 확대

지속적인 연대보증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경감됐으나,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음.

- 창업 실패 시 기업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어 우수 인력의 창업의욕을 저해하고 있음.
- 정부는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자금을 활용해 2단계로 연대보증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
- **1단계** 중진공의 창업자금 중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면제’ 대상을 확대함.
  연대보증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 현행
  236개사(6.3%) →2,028개사(53.8%)
- **2단계** 기술보증기금 평가 결과 일정 등급 이상의 우수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
  점차 금융권 전반으로 연대보증면제를 확산 예정.
- 연대보증면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기보다 창업의지는 제고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안전 장치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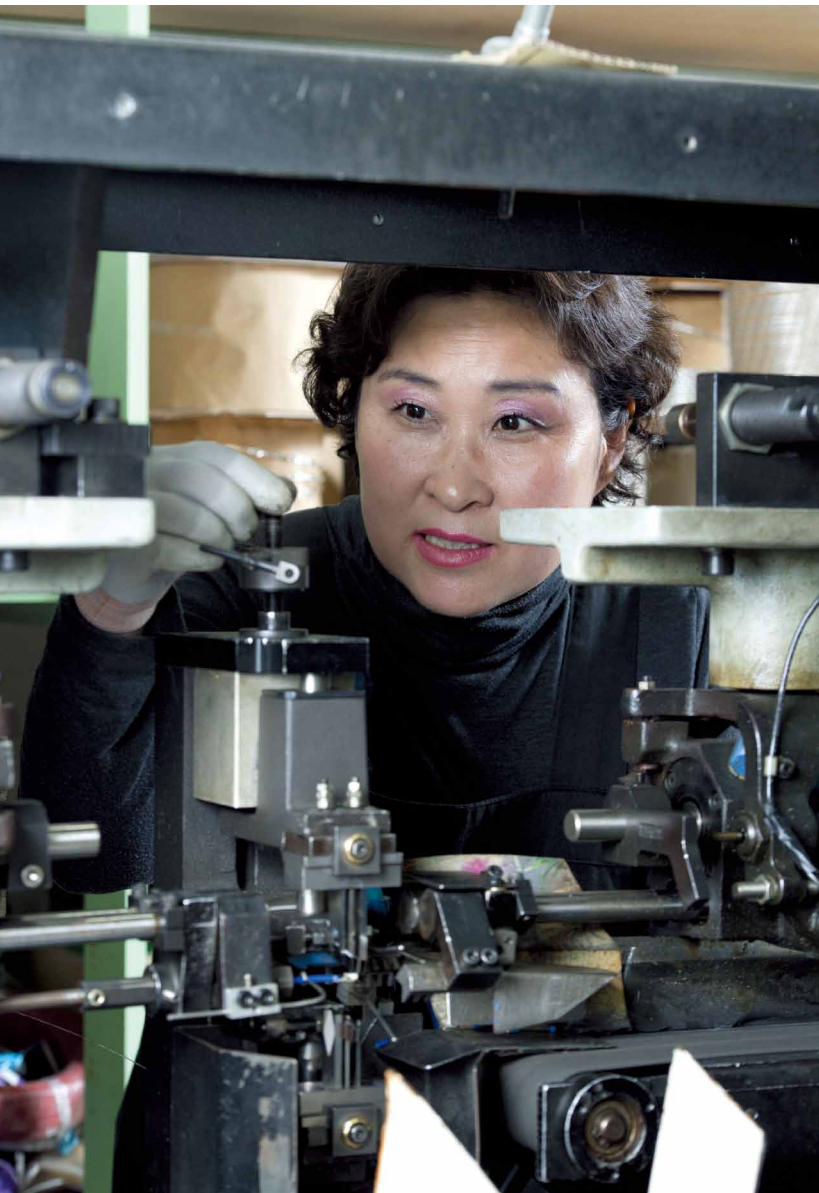
창업자금 연대보증면제 대상

구분		현행	개선
면제 대상	기업평가등급	SB(기술사업성 평가등급·4등급) 이상	SB(5등급) 이상
	업체수(금융위서 2013년 말 발표 예정)	236개사 (6.3%)	2,028개사 (53.8%)

“중소기업 부실징후 관리·진단해줬으면”

재기한 박승자 케이피전자 대표 “구조개선 등 한발 먼저 못한 게 지금도 아쉬워”

김현동 기자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케이피전자를 이끌고 있는 박승자 대표. 박 대표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부실 징후를 함께 관리해 주면 위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직~ 지지직~.” “지이잉~ 지이잉~.”

전기드릴 돌아가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계 소리에 맞춰 직원의 손놀림도 빨라지기 시작했다. 한 직원은 오른손에는 전기드릴을 들고, 왼손에는 누전차단기를 들고 조립 작업에 열중했다.

11월 4일 경기 김포에 위치한 케이피전자를 찾았을 때 여성 직원 세 명이 한창 작업 중이었다. 케이피전자는 누전차단기, 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직원들 사이로 화통한 목소리의 한 여성이 눈에 띄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그는 케이피전자를 23년째 이끌고 있는 박승자(54) 대표다. 전자업계에서 여성 CEO가 20년 넘게 기업을 운영하는 건 드문 일이다. 박 대표는 “오랫동안 한길을 걸어온 게 많이 알려져 맏언니 대접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전자업계에서 인정받는 여성기업인 되고 싶다”

케이피전자의 전신은 ‘인기텍’이다. 박 대표는 1990년 인기텍을 설립했다. 당시 한 자동차회사에서 근무하던 지인이 박 대표에게 사업을 해 보라고 권유한 게 발단이 됐다. 당시 인기텍은 자동차회사에 케이블을 납품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이 상승했다. 또 컴퓨터 부품까지 개발해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회사도 크게 성장했다. 직원 5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어느새 직원이 50명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호시절은 계속되지 않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회사는 급격하게 어려워졌다.

“그때 어음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수금을 해도 현금보다 어음이 많았죠. 어음이 들어오면 그 달에 회수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현금으로 자재값, 월급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미치는 노릇이죠. 급할 때는 사채업자도 찾아가고 그랬어요. 게다가 주문도 줄어드니까 당해낼 도리가 없더라고요.”

박 대표는 당시를 떠올리면 힘들다는 생각보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만약 IMF 위기에 대해 미리 알았더라면 대책을 마련해 볼 수 있었겠는데 아예 시도조차 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IMF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체감을 전혀 못 했어요. 죽어라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 갑자기 난리가 나더라고요. 대기업은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누군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힘들어요. 먼저 알았더라면 기업의 구조조정, 구조개선을 적극적으로 했을 거예요. 위기가 닥친 뒤 수습하는 식의 구조조정은 별 의미가 없어요. 미리 위기를 감지하고 그 전에 구조조정을 해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만약에 IMF가 뭔지, 경제 위기가 뭔지 빨리 알았더라면 생산관리자를 줄이고 어음을 안 받는 등의 대책을 세웠겠죠. 환율 대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이 정말 아쉬워요.”

이후 박 대표는 집, 사업체 규모를 줄여가며 더욱 일에 매달렸다. 상가 지하에 방을 얻어 한 편을 살림집으로, 또 다른 편은 공장으로 사용했다.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며 막내 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박 대표는 아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다. 그는 지금도 아들이 받은 상처만 생각하면 마음이 저릿저릿하다고 했다. 2011년엔 ‘인기텍’에서 ‘케이피전자’로 기업 이름을 바꿔 재창업에 성공했다. 케이피전자는 지난해 매출 5억원을 올렸다.

박 대표는 “아직도 어렵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업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며 “전자업계에서 꼭 인정받는 여성 기업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G

글·김혜민 기자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구조개선 지원기능 신설

구분	현재		추가
지원대상	경쟁력 저하 업종 축소·폐지 이후 새로운 업종 진출	→	경쟁력 저하 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에 필요한 사항’
구조개선 목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기준 30% 이상 업종전환 또는 업종 추가 여부만 제시	→	구체적인 구조개선 목표 제시 * 예시 : 자기자본이익률 2%p 향상, 자산회전율 2%p 향상 등

자료·관계부처 합동

부실징후 중소기업들 구조개선 돕는다

심층진단 기반으로 전략제시·자금지원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금융권의 ‘기업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운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추진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 산업환경 변화 등에서 기인하는 부실위험 파악이 곤란하고,추가 부실 우려 등으로 신규 여신 지원도 제한적

개선방안

- ‘구조개선 심층진단 및 지원 절차’ 신설
  대상 : 은행권 단독 지원이 어려운 부실징후 중소기업
  절차 : 주채권은행 추천 → 진단 신청 → 구조개선 심층진단 → 관계기관 심의 및 처방 → 구조개선 실행 지원
- 전문가 진단 및 진단기관 평가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구조개선 방향(구조개선 처방, 사업전환 처방, 사업정리 등)을 설정하고 세부전략 및 로드맵 제시, 심층진단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처방전을 주채권은행 등의 의견 청취 후 심의·의결
- 구조개선 처방 : 구조개선자금 공동지원 및 기술개발·마케팅 등 건강진단 연계지원 제공 (필요시)
- 사업전환 처방 : 사업전환 지원자금(융자)·컨설팅 등 패키지식 지원
- 사업정리 처방 : 자산매각 지원, M&A·파산 등을 통한 신속퇴출 유도

"재기 도울 간소한 회생절차 아쉬웠다"

두 차례 실패 딛고 재기한 강승배 쿠나이엔티 대표 "좌절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큰 도움"

카페, 파스타 음식점, 호프집…. 강승배 대표는 20대 때 이미 사업에 뛰어들어 승승장구했다. 1990년대 당시 한 달에 1천만원씩 벌 만큼 장사 수완이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가진 돈만 믿고 떵떵거리는 다른 가게 사장들을 보며 회의감이 들었다.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창업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 대표 옆에는 그의 강아지 '웅자'가 함께 있었다.

오상민 기자

강승배 쿠나이엔티의 대표는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재기에 성공했다.

강 대표는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스타가 된 강아지 웅자를 브랜드로 삼아 창업에 나섰다. '웅자닷컴'이란 회사를 설립해 웅자의 인기에 힘입어 애견용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웅자는 강 대표를 만나 보금자리를 찾은 유기견이었다.

첫 도전은 만만찮았다. 장사는 많이 해 봤지만 사업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경영, 재무 등 사업에 필요한 마인드와 지식 모두 부족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저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쉽지 않더군요. 섣불리 많은 투자를 했고, 자금은 금세 바닥났습니다. 웅자는 여전히 방송에 나가고 있었지만 사업은 이미 어려워진 상태였죠."

2003년 강 대표에게는 '신용불량자'란 꼬리표가 붙었다. 은행에선 압류 경고가 왔고, 심지어 웅자에게도 딱지가 붙었다. 당시에는 이를 구제해 줄 정부 정책도 마땅찮았다. 온갖 협박 전화를 이겨가며 2년을 버텨냈다. 그 후 강 대표에게 투자하겠다는 개인투자자가 나타났다.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지분을 50 대 50으로 나누자는 투자자의 제안에 합의한 것이 두번째 실패의 발단이 됐다. "1억원을 투자받으면서 지분을 반반씩 가지기로 했습니다. 투자가 절박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죠. 사업이 잘되자 반년 만에 6억원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투자가 늘어나자 지분율은 35퍼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연매출 20억원을 달성하며 '웅자닷컴'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또 한번 시련이 찾아왔다. "신용 상태가 안 좋아 대출이 어려우니 대표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 있으라"는 투자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결국 불안하던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인생을 걸고 키워온 회사를 잃자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첫번째 실패와는 달리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 실패한 강 대표가 재기할 수 있었던 건 다양한 정부 지원 덕택이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캐릭터 개발 지원 사업에 사업 계획을 냈고, 여기에 선발돼 지원금을 받아 웅자 캐릭터 이외에 5개 캐릭터를 더 만들었다.

강 씨는 '쿠나이엔티'라는 회사를 다시 설립했다. 이 캐릭터들로 청년창업대회에 나가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벤처투자자들의 관심도 얻을 수 있었다. 사무실까지 지원받아 임대료 없이 3년 동안 사용했다.

"은행도 돈을 빌려주지 않고 주위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금액이 크든 작든 지원받을 수 있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중진공·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으로 재기 발판

그러는 동안 기회는 다시 찾아왔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가 강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본 후 만나고 싶다고 한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쿠나이엔티'는 이 대형 유통업체에 애견용품을 납품하게 됐다.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겨 재기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회생하는 데 있어 강 대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신용회복' 기간이었다.

"최장 8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다 갚고 난 후에도 1년이 지나야 신용등급이 회복되죠. 그 기간 동안에는 제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다 같은 범주로 묶고 낙인 찍을 것이 아니라 자산이 있는지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구분해서 회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는 2005년부터 신용회복을 위해 빚을 갚아 나가고 있어 회복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당장은 회사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자금이 생기는 대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강 대표는 중소기업 재도전 정책으로 회생절차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신속회생절차' 도입으로 줄어드는 5개월은 실제 사업하는 상황에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여러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생절차를 겪는 기업인의 입장에선 그 과정 자체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입니다. 다음 단계로 신속히 넘어갈 수 있다면 기업 회생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G

글·남형도 기자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해 빠른 회생 지원

앞으로는 통합도산법에 '중소기업 신속회생절차'가 도입되어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부채 규모가 크지 않고 이해관계인이 적음에도 회생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사례가 많았다. 회생절차가 길어지면 자금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기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현행 통합도산법 상에도 중소기업 채무자에 관한 특칙 규정은 있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를 제공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를 폐지한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부터 채권신고가 만료되기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미리 제출하고, 추후 계획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아울러 제1회 관계인집회도 생략한다. 제1회 관계인집회란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이해관계인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집회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절차단계		개시 신청~개시 결정	개시 결정~회생계획 인가
평균소요기간	일반절차	34일	8.6개월
	신속절차	7~14일	3.3~4개월

"세상 좋아졌죠, 정부가 재창업 돕다니…"

최봉석 보림제작소 대표 "실무 지식·기술 전수하는 '연계형 시스템' 기대됩니다"

최봉석 대표는 "정부의 지원으로 수월하게 재창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도를 맞은 뒤엔 야반도주하다시피 했습니다. 평소 안 좋게 생각했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나일 줄은 몰랐어요." 11월 4일 경기도 화성에서 만난 최봉석(55) 보림제작소 대표는 8~9년 전 일이 생생한 듯 어렵사리 말을 이었다.

"방 두 칸짜리 비좁은 연립주택으로 옮겼는데 집사람이 챙겨 나온 장롱이 (너무 커서) 집에 안 들어가는 바람에 버렸다 하더군요. 그 얘기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최 대표는 대우그룹이 건재하던 1984~1997년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자동차에서 일한 우수 기술자였다. 경남 창원의 대우차 생산기술연구소에서 도장생산기술팀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국민차로 불리던 경차 '티코' 생산에 기여하기도 했다. 보람은 있었지만 내 사업을 하면서 미래를 개척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결국 회사를 나와 창업을 준비하고 2000년에 코웨이테크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자신 있던 도장설비 분야를 주요 창업 아이템으로 잡았다.

시작은 좋았다. 사업 첫해에 2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가 만든 녹제거용 쇼트블라스트머신은 육군정비창에 국산품으로는 최초로 헬리콥터 녹제거용으로 납품할 만큼 평판이 괜찮았다. 다음 해에는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의 9억원짜리 공장 건물 경매에 낙찰돼 사업을 키울 꿈에 부풀었다.

"자만이었죠. 초반에 잘되면서 탄탄대로일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해 보니 아니더군요. 현금 유동성 관리에 실패했던 걸 가장 후회합니다. 채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직원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2004년 부도를 맞았습니다."

중기청 도움으로 사업의 인적 네트워크 확보 큰 수확

믿고 맡겼던 직원 일부의 배신도 뼈아팠다. 사람과 세상이 무서워 1년간 집에 틀어박혔다. 부인이 틈틈이 일하며 한 달에 받는 돈 7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후 다른 중소기업에 취직해 일하기도 했지만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다.

그러던 그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2011년에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이 경남 통영의 죽도에서 '힐링캠프'를 연다는 기사를 본 직후였다. 중소기업청 지원하에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재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재창업, 한번 실패한 후로는 엄두조차 못 내던 일이었다.

수료 후 그의 삶은 가파르게 변해갔다. 긍정적으로 바뀐 마음가짐이 첫 수확이었다면, 이후 중기청의 도움을 받으며 사업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두번째 수확이었다.

최 대표는 죽도 힐링캠프 수료생 모임 '허밀청원'의 회장으로 중기청과 회원 간 친목 도모와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중기청 재도전성장과는 대전에서 열리는 허밀청원 임시총회 때마다 설명회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늘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 주문량이 증가하는 데도 영향이 컸어요."

최 대표는 1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 6월 재창업에 성공했다. 직원 관리, 현금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나날이 깨우치는 중이다. 보림제작소는 목욕의자나 안전손잡이 같은 복지용구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납품하거나 완제품을 조립해 파는 회사다. 금속가공 일도 같이 한다. 직원 수는 6명으로 아직 규모가 크지 않지만 월매출 4천만원을 올리며 보란 듯 재기에 성공했다. 내년엔 연매출 10억원 달성이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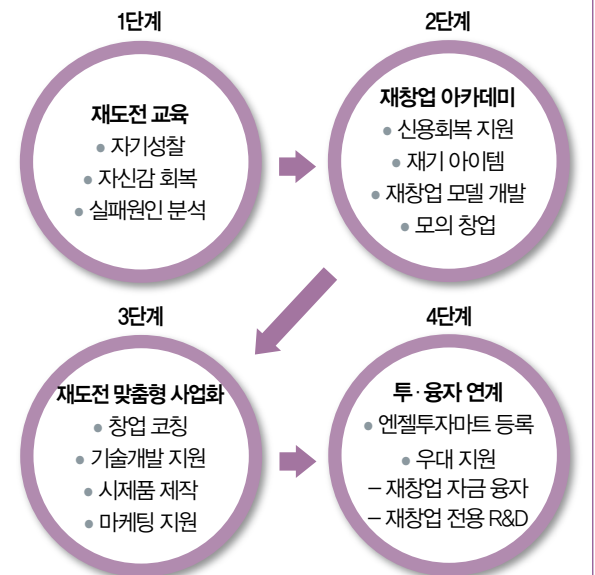
그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주변에서 제조업을 하면 애국자라 그러더니 사업에 실패하고 나선 도둑놈 취급하더군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고 재창업이란 단어 자체도 없었지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서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은행권에서 재창업 자금을 빌려 쓸 때 예전 같으면 비협조적이었겠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부가 직접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힘을 보태는 경우도 늘었다. 최 대표는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연계형 재도전 지원시스템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들을 점진적으로 교육해 준다니 기대됩니다. 투·융자 연계 부문은 제가 실무자에게 '융자보다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투자는 무리하게 끌어 쓰는 '빚'이 아니니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이 될 겁니다." G

글·이창균 기자

연계형 재도전 지원시스템 4단계

- **내년 3~4월 중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 새로 도입**
  - 그간의 창업지원 사업과 재창업지원 사업, 재도전 기업인과 예비 청년창업자 사이 연계가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분석, 이를 보완하기 위함
- **신용관리교육부터 창업사업화, 투·융자까지 재창업의 모든 과정 지원**
  - **1~2단계(창업교육)** 실패원인 분석, 신용관리와 창업 역량 강화
  - **3단계(재창업사업화)** 교육 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 사업화 지원
  - **4단계(투·융자)** 사업화 과정 수료자에 대해 재창업자금 융자,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우대, 재창업 엔젤투자마트 개최(엔젤투자자들에게 기업설명회(IR)를 열 기회 제공)
- **재도전 기업인과 청년인재의 공동창업 기회 제공**
  - 창업자원 발굴·매칭을 위한 컴백 캠프를 연 4회, 2주씩 개최
  - 창업아이템 구현을 위한 공동창업경진대회를 연 1회, 2개월간 개최
  - 우수 창업팀 대상으로 창업 인력·자금·기술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과 멘토링 지원(민간 액셀러레이터 연계)
  - 기존에 벤처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청년인재 위주로 공동창업 기회를 제공(경험을 예비 창업자들에게 전수)
- **재도전 관련 제도와 사업 확충**
  -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도입(중기청 30억원, 미래부 20억원)
  - 기존에 추진 중인 '벤처1세대 멘토단'을 확대
  - 정보통신기술(ICT) 인력양성사업에 창업 관련 강좌 개설(실패 벤처기업인을 전문강사로 채용)

"사전교육 등 차별화된 지원 필요"

조정래 아이앤지엔지니어링 대표, 파산면책 받고 개인사업 부활의 꿈 다져

지난 11월 2일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남성이 자신이 구상한 어태치먼트 장비(삽에 해당하는 연결장비) 설계도를 안경 너머로 살피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갈을 퍼서 들어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삽 머리 뒤로 돌이 쏟아지는 특이한 구조였다. 특허상품이라 했다. 지난 8월에는 이와 비슷한 '버켓 크러셔'라는 제품을 태국에 수출했다.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원(HIT)의 창업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지난해 벤처 창업으로 재기에 성공한 조정래(58) 아이앤지엔지니어링 대표다.

아이앤지엔지니어링은 건설 현장에서 땅의 흙이나 암석을 퍼올리는 굴착기용 어태치먼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바위나 큰 돌을 작게 부수어 자갈(쇄석)을 만드는 크러셔, 산업·농업기계도 만든다.

이렇게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성도E&C의 대표였다. 서른여덟에 설립한 성도기업이 마흔에 법인으로 전환되며 회사는 승승장구했다. 3년 만에 매출을 60억원까지 올렸다. 하지만 2007년 부도를 맞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적자 20억원 정도를 포함해 홀랑 말아먹었죠. 겨우 구멍 난 곳 메우고 살리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날짜도 안 잊고 있어요. 3월 16일자 어음을 3월 2일에 상환 요구받으면서 꼼짝없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25명 남짓 되는 직원들의 마지막 월급을 못 챙겨주면서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비싼 아파트에 살던 그는 월세 50만원짜리로 집을 옮겼다. 1년 반 정도를 술만 마셨다고 했다. "(자살을) 두 번 시도했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할 때마다 주변에서 도와줬어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이후 지인의 부탁으로 대구에 위치한 중소규모 중공업 부사장을 하다가 파산면책을 받으면서 개인 사업의 꿈을 다시 꾸게 됐다.

김현동 기자

조정래 아이앤지엔지니어링 대표는 "재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 겨울을 뒤로 하고 힘차게 봄이 솟는다. 파란 싹이 돋는다. 우리의 가슴에도 봄이 움튼다."(<죽도의 봄>)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이 위치한 죽도에서 사업 재기 의지를 다지며 조 대표가 써내려간 시다. 지난해 3월 재기중소기업개발원에 들어가 한 달간 교육을 받았다. 2기 졸업생인 조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교육 등의 인프라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2의 인생·사업을 준비하던 그는 대형 크러셔를 아이템으로 해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지원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그는 재창업의 과정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등의 법률이나 재기를 돕는 지원 방식 등 재기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같이 다시 창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성공률에 대한 불안이 일반 창업자들보다 크다" 며 "재창업자에게 '앞으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교육했으면 시행착오를 덜 겪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랬다면 재창업 이후에도 몸을 사리거나 쉽게 도산하리라는 불안감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창업자에겐 세금감면 제도 없어 힘들었어요"

특히 정부가 일괄적인 폭으로 지원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제조업의 경우 3~4년 이상 영업해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업종에 따라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상품마다 경향과 성공 확률도 다른데 상환 시기와 지원금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세금감면 제도도 개선되길 바랐다. 재창업지원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가 대부분인 재창업자들에게는 감면제도가 없어 힘들었다는 것이다.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도 이어지는 신용불량자 꼬리표는 거래나 투자를 어렵게 해요. 정부에서 운용 실적 등을 면밀하게 진단해서 회생 가능한 기업에 세금 감면과 같은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 대표는 자신에게 '성공'이라는 말은 없다고 했다. "회사 이름처럼 '아이앤지(ING)', 제 인생도 늘 진행 중이죠." G

글 · 박지현 기자

구조개선 전문가 육성 등 재창업 안전망 구축
재창업자들 교류 통한 사회인식 개선활동 확대

법률적으로 재창업자 지원 수단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가칭)'으로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촉진법은 ▶건강관리 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구조개선 기업지원 ▶재도전 정책 ▶구조개선 전문가 육성 등이 골자다. 특별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강관리 제도가 구축된다. 기업 중심의 종합병원이 생기는 셈이다. 이를 전담하는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이 마련돼 중소기업 체질 강화 및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이를 꾸준히 관리해 준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의 정책 플랫폼을 통해서다. 정부 유관기관·학계·업계 등 구조개선과 재도전 관련 전문가들은 '재도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재기한 기업들을 점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재창업 중소기업의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등을 검토해 구조개선에 동참한다. 참여 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재도전기업인협회 등이 있다.

재창업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사회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다. 10월 30일에는 실패 기업인의 위기극복 및 성공사례 발표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2013 재도전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국판 'Falicon(Failure Conference)'이라 불리는 이 행사는 미국 실리콘밸리 실패 경험자들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2009년 시작됐다.

또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재창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도 기획돼 있다. '재도전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이 이벤트는 창업아이템을 두고 경쟁 선발로 뽑힌 10여 명의 창업자들에게 전문 교육 및 자금 지원 등 창업 여건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실패도 자산’… 실리콘밸리 생태계 조성

연대보증면제 부담은 재정서 맡아…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 필요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중소기업청에 물어봤다.

Q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으로 재도전자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A 재도전을 준비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형 재창업 지원, 청년 인재와의 공동창업, 재창업 연구개발(R&D) 지원, 재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을 2014년 봄(3~4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Q ‘재도전 창업 생태계’란 무엇이며 한국의 실정은?

A 창업→성장→퇴출→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발달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태계 안에서 기업의 재도전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번의 창업실패가 곧 창업자와 창업자 가족들까지의 인생 실패로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Q 외국의 재도전 창업은?

A 선순환 창업 생태계의 예시로 미국 실리콘밸리가 손꼽힙니다.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2.8회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과거 창업실패 경험이 현재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실패 경험이 자산이 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용인되어 재창업이 활발히 이뤄질 때 바람직한 재도전 생태계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과거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정책(벤처패자부활제, 재창업자금지원제도, 재창업지원위원회 등)과 이번 종합대책과의 차이점은?

A 지금까지의 정책은 이미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시행됐습니다. 실패 이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 연대보증제도 완화를 통해 실패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 위기를 조기에 진단하도록 함으로써 실패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한 실패원인 분석,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해 유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실패 기업인이 재도전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A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부담과 신용불량에 따른 경제활동의 제한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연대보증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을 사전·사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연대보증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제3자 연대보증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 책임은 아직 존속합니다. 이 때문에 창업에 실패하면 기업인에게 채무가 전가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수 인력이 창업을 기피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Q 연대보증 책임과 관련한 종합대책은?

A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가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 및 재정 손실, 신용경색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대책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창업자에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합니다.

Q 창업 활성화→재도전 활성화로 지원 방향이 바뀐 이유는?

A 지속적인 ‘창업·벤처 활성화 대책’ 시행의 노력으로 창업환경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고 정리절차가 복잡해 기업을 시작하기보다 그만두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재도전 지원 제도가 수립·시행됐지만 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이전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창업할 경우 최초 창업보다 성공률과 성공 효과가 현저히 개선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도전 활성화를 통해 실패 기업인의 경영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창업 실패 부담 완화→기업실패 최소화 지원→재창업 성공률 제고 등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재도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Q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부담은 누가?

A 법인기업이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하면 정책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 손실을 떠안습니다. 이런 손실 부담을 정부가 재정으로 안습니다. 이러한 재정손실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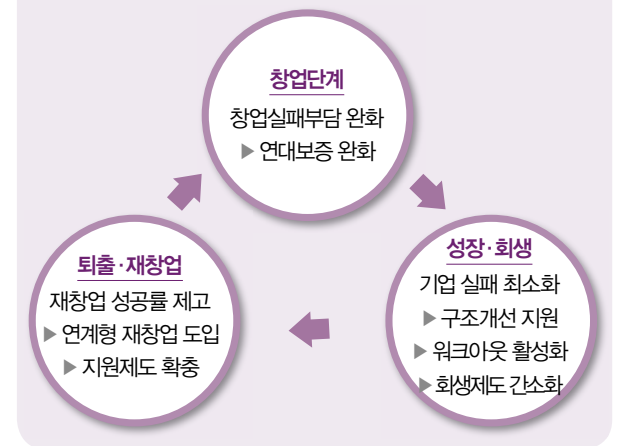
Q 책임을 면해주는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는?

A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하면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 및 재정 손실, 대출 기피로 인한 신용경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가산금리(0.4~0.8퍼센트포인트)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도 가산보증료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또한 기업인들 스스로도 건전한 기업가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건강진단 기반구조개선 지원시스템의 전문가들은 누구?

A 구조개선지원은 주채권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내부 기업평가 전문가들과 경영지도사, 기술사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들이 진행합니다. 이들은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보완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진단을 수행할 것입니다.

Q 회생절차 간소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A 회생절차 진행에서 소요기간은 회생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사실상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이용이 어렵게 되고, 회생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영자금 소진 및 외부 거래단절 등의 문제가 심화됩니다. 회생절차로 회생 가능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종합대책은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 ‘중소기업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합니다.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를 폐지하고 관계인집회를 생략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 평균 9개월인 회생기간을 4~5개월 단축합니다. 회생절차 단축을 통해 회생기간 중 자금난으로 인한 도산을 막고, 회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연계형 재도전 지원을 위해 실패 창업자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A 연계형 재도전 지원은 ①교육→사업화→투·융자 등 재창업의 전 과정을 연계지원하는 프로그램 ②재도전 기업인과 청년 인재를 연결시켜 공동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준비 중입니다. 내년 3~4월께 참여자 모집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각 부처 홈페이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Q 재도전 기업인과 청년 인재의 공동창업을 위해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방법은?

A 연 2~4회에 걸쳐 청년 인재의 창업분야, 아이디어 등을 수렴해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아이템을 선정합니다. 사업분야와 사업아이템에 대한 관심도, 재기 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된 재도전 기업인과 연결해 줄 예정입니다. G

글·박상주 기자

최연혜 코레일 사장 인터뷰

"부산에서 유럽까지 대륙철도 꿈꾼다"

"유라시아 대륙은 이미 철도를 통해 다 연결돼 있으며, 정치적 합의만 이뤄지면 언제든 운행이 가능합니다. 철도 연결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또 대륙철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철도운송협의회(OSJD : 구소련 국가 철도협의체)에도 12월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015년까지 영업흑자 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14년 역사에서 최초 여성 CEO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지난 10월 2일 취임한 최연혜(57) 사장. 야간 취임식, 휴일 업무보고, 취임 일주일여 만의 쇄신 인사, 현장 방문 등 쉼없는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벌써 취임 한 달이 지났다. 헤르만 헤세를 읽던 문학소녀에서 철도최고경영자로 변신한 최사장에게 한국철도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봤다.

첫 여성 수장으로서 소감이 어떤가요?

"1899년 시속 20킬로미터에서 시작한 한국철도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해 왔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 공기업을 이끌게 돼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임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도와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이 궁금합니다.

"철도 관련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독일에 유학하는 동안 기차를 자주 이용하면서 철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왕국이면서도 전국의 구석구석까지 철도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철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또 독일 통일 과정에서 철도가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철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 산업연구원(KIET)에 재직하던 중 한국철도대학 교수 공모 공고를 보고 응모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철도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제 철도공사 사장까지 맡게 돼 철도를 제 숙명인 것처럼 느낍니다."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라시아 구상을 발표하면서 새삼 대륙철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평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단일시장을 만들자는 제안이며 그 핵심이 바로 SRX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이미 철도를 통해 다 연결돼 있으며, 정치적 합의만 이뤄지면 언제든 운행이 가능합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철도 연결의 변수였던 북한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륙철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철도운송협의회(OSJD : 구소련 국가 철도협의체) 가입도 이번에 승인을 받아 12월 가입 예정입니다. 철도 연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적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류만 보더라도 해상 수송에 비해 일주일 이상 운송시간이 단축되고 연간 수천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기대됩니다. 이는 곧 국내 제품의 해외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도 입증됐듯이 철도 연결은 국토의 물리적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실질적 통일에 이르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철도 연결, 준비도 철저히 해야겠네요.

"철도인으로서 오랜 기간 대륙철도를 동경했습니다. 그동안 남북 분단으로 섬 아닌 섬에 갇혀 있다 보니 대륙을 지나 유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염원이 더 간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에서 우호적 여건만 믿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대륙철도 시대에 대비해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은 비용절감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늘 하신 걸로 압니다.

"철도는 대량수송 교통수단으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안전은 최상의 고객 서비스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가치이며, 단 0.01퍼센트의 실수도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취임 이후 직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충분히 확충하고 휴먼 에러에 대해서도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전만큼은 비용절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코레일은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선진 안전시스템과 안전제일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연혜 사장의 저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잊혀진 대륙의 길을 찾아서》(나무와숲,2006)

철도고객 서비스,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환승도우미, 미니도서관 등 고객서비스 향상을 체감하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빅데이터(Big-Data)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하루 평균 350만명 이상의 고객이 철도를 이용하며, 연간으로는 11억명에 달합니다. 코레일은 고객 한 분 한 분의 여행정보부터 불편사항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과 상품 개발에 나설 생각입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세대를 위한 다양한 IT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기차표 예매 전용 앱 '코레일 톡'은 출시 3년 만에 전체 기차표 판매량의 35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열차의 인기는 어떤가요?

"O,V트레인은 지난 4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30만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O,V트레인을 운행하면서 석탄산업 쇠퇴로 생기를 잃었던 중부내륙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7년까지 1천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1천명 이상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관광열차는 코레일 수입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 창조경영의 대표 사례입니다. 올해 중부내륙과 남도해양벨트 구축을 시작으로 내년에 평화생명벨트, 서해골드벨트, 동남블루벨트까지 전국 5대 권역에 철도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연계 상품과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철도관광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G

글·이창균 기자

"청렴하셨던 외할아버지 당부 지켰다"

서울지방조달청 '반부패·청렴' 백일장… 행정6급 박준한 씨 최우수상

문화의 달(10월)을 맞아 서울지방조달청(서울청)이 백일장을 열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계산에만 몰두할 것 같은 조달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양한 문체로 선보였다. 글을 쓰면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아보고, 이후에도 청렴함을 잃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수기, 수필, 시, 시조, 5행시('반부패·청렴'을 각각 머리글자로), 표어, 콩트를 공모했다. 서울청의 수습 및 계약직 직원까지 포함한 전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했다. 응모 결과 총 53편이 접수됐다. 그 중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서울청 시설팀 행정6급 박준한 씨가 받았다. 박 씨는 〈두 번의 위기〉라는 글에서 부정한 행위에 노출됐던 두 번의 경험을 찬찬히 풀어냈다. 그의 첫번째 이야기는 전국 각지를 다니며 건설과 제조업체의 하도급 관계를 조사하면서 겪은 이야기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몇 건 적발한 그에게 업체 직원이 다가와 편지봉투를 내민 것이다. 박 씨는 당연히 봉투를 거절했지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던 스스로의 모습에 창피함을 느꼈다고 진솔하게 털어놨다. 두번째 이야기는 결혼식을 앞둔 그에게 조사대상자가 축의금을 주고 싶다며 지하주차장으로 나와달라고 했던 일이다. 박 씨는 조사대상자를 아예 별도로 만나지 않고 전화로 정중하게 축의금을 거절했던 당시 상황을 서술했다. 박 씨는 반부패·청렴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켰다고 했다.

"공직자로 살아가면서는 항상 밤에 두 다리를 뻗고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처신을 잘해야 한다.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민원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이후부터는 그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하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외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박 씨는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는 몸과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 야겠다고 다짐했다.

우수상은 시설팀 행정6급 윤경자 씨의 중학교 2학년생 자녀 김혜인 양이 받았다. 김 양은 학교 내 집단따돌림 이야기를 수필로 썼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또래도우미'라는 동아리활동 경험을 적었다. 김 양은 '학교에서는 회장·부회장 같은 임원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친구가 많은 아이들이 솔선수범해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왕따나 은따를 당하는 아이들을 돌봐줘야 한다'는 결론을 적었다. 글·박상주 기자

우수상 시부문 공사관리팀 시설8급 김혜영

다섯손가락

엄지손가락…
붉은 빛 화장을 하고 하얀 백지 위 흔적을 남깁니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고
검지손가락…
손가락에 묻은 쓴맛, 단맛, 짠맛, 신맛이 당신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당신을 지키며 살겠노라고
중지손가락…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고 기울지 않는 평정심으로
당신을 신뢰하며 살겠노라고
약지손가락…
손가락에 끼워진 빛나는 반지의 약속처럼
당신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새끼손가락…
어린시절 친구의 비밀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한 그 마음으로
당신의 비밀을 지키며 살겠노라고
당신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국민입니다.
뜨거운 손으로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끼며
굳게 다짐합니다.
다섯 손가락처럼 살겠노라고…

송시윤 서울지방조달청장

"직원들 높은 반부패·청렴 마인드 확인"

38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 온 송시윤 서울지방조달청장은 반부패와 청렴을 공무원의 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문화의 달 백일장 주제를 반부패·청렴으로 정한 이유다.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해 직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하셨는데, 개최하신 배경은 무엇입니까?

"문화의 달(10월)을 맞아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한 창작활동을 통해 공직사회 스스로 반부패·청렴문화에 대한 다짐을 하고 청렴 분위기를 확산시키려 했습니다."

백일장에 응모된 글들을 보시고 난 소감이 어떠신가요?

"많은 업무로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진솔하고 소박하게 반부패·청렴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담았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반부패·청렴에 스스로 나서겠다는 의식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직원들 스스로 반부패·청렴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체화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글로 표현한 것을 보면 평소 청렴을 실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조달청은 단순한 저가공급을 벗어나 조달업체의 기술력·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청에서는 관련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수조달 물품, NEP(신제품인증) 및 NET(신기술인증) 제품, 친환경 인증제품,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등 기술우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방 및 방송 장비 등 특수 장비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규격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 기술검토를 거쳐 기술력을 갖춘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은 시대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중소·지역기업 등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어떠한 정책에 역점을 두고 계신지요?

"조달청이 대행하는 공사에 공급되는 관급자재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우선 선정합니다.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및 경기지역 140개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역기업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현장 방문이나 중소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송시윤 청장은 중소기업·지역경제를 위한 조달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용해 왔던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입찰시스템)를 아파트관리소 등 민간에도 개방했는데요, 어떻게 추진하시게 된 건가요?

"최근 일부 아파트관리사무소들의 계약 비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나라장터는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시스템입니다. 이를 민간단체들도 이용하면 계약비리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청에서는 나라장터 이용을 희망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박상주 기자

미아 방지… ‘지문 사전등록제’ 아시나요?

치매환자까지 대상 확대… 가족 실종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 크게 단축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9월 1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길을 잃어 울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됐다. 신고접수 시간은 오후 5시 20분께.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서 출동해 아이를 데려왔다. 아이가 너무 어려 정확한 이름 확인이 어려웠다.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이 되어 있는지 경찰의 사전등록 시스템을 확인했다. 다행히 두 달 전 사전등록이 돼 있었다. 5세 A양이었다. 외출하는 할아버지 뒤를 따라 나섰다 길을 잃은 A양은 주민의 미아발생 신고 접수 20분 만에 어머니에게 연락이 닿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지난 9월 8일에는 경북 경주시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10세 B군이 부모와 함께 교회에 갔다가 길을 잃었으나 지문 등을 사전등록해 놓아 미아발생 신고 25분 만에 가족을 되찾았다. 경찰에 아이가 배회하고 있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된 시간이 낮 12시 5분, 아이를 잃었다고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때가 12시 12분, 아이가 가족에게 돌아간 것이 12시 30분이었다.

A양이나 B군의 경우처럼 경찰청이 지난해 도입한 어린이 등 실종예방 ‘사전등록제’가 빠르게 실종가족을 되찾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신청(동의)으로 만 18세 미만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모든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안전신고 포털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도 사진·인적 사항 등에 관한 사전등록을 받고 있다(지문 등록은 직접 경찰 방문).

전국 175만명 등록… 실종발생률 9.9퍼센트 감소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전등록제는 지난해 7월 1일 먼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가 올해 3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등의 실종은 매년 2천여 건 이상씩 증가하던 추세였으나, 사전등록제 서비스 시작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2년 말에는 전년 대비 876건(3.8퍼센트)이 감소했다. 올 9월 말 기준으로 등록 대상자의 17.2퍼센트에 해당하는 175만여 명이 사전등록제에 지문 등을 등록했고, 실종발생률은 전년 대비 9.9퍼센트가 줄었다.

특히 사전등록을 집중 실시한 만 1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발생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 9월 말까지 만 18세 미만 어린이 172만여 명이 사전등록을 마쳤으며(등록률 18.5퍼센트), 실종발생률은 18.7퍼센트 감소했다.

사전등록제는 가족의 실종으로 겪는 고통의 시간을 크게 단축해 준다는 점에서도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월 말까지 실종 어린이 등의 발견 시 간단한 지문·사진 스캔으로 사전등록 기록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50명의 미아에게 보호자를 찾아주었으며, 보호자를 찾는 데 평균 24분이 소요됐다.

사전등록이 되지 않은 실종 어린이 등이 보호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86.6시간이다. 실종된 가족을 찾긴 하겠지만, 가족 실종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시간을 사나흘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한 것이다.

지적 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다시 실종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전등록을 통해 신속한 신원 확인과 보호자 인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보호자와 경찰의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 18세 이상 지적 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주민등록상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만, 지문 감식을 통한 신원 확인은 채취·송부·감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진행에 일주일가량 소요된다. G

글·박경아 기자

함께 알아두세요!

실종어린이 등 신고전화 국번 없이 182

경찰청은 실종 어린이 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해 182실종아동찾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전국에서 발생하는 실종 신고를 국번 없이 182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접수하고, 경찰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해 현장탐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Dream 포털(www.safe182.go.kr)

기존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실종신고(182실종아동찾기센터)와 학교·성·가정폭력·성매매 신고(117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한 대국민 포털사이트다. 어린이를 비롯해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신고 접수, 신속한 상담·지원을 위한 게시판·문자 등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

지문 사전등록제란?

어린이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

사전등록 대상은?

만 18세 미만 어린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과 치매환자 중 보호자가 등록을 원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경찰관서 방문 등록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지구대·파출소에서 등록.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부터 지문등록까지 할 수 있음.

2. 안전Dream 인터넷 자가등록

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안전Dream 이용. 보다 자세한 정보 등록이 가능하며, 정보업데이트도 편리. 단, 추가로 지문 등록까지 하려면 지구대 등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함.

사전등록 자료 관리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 차단해 안전하게 관리

- 등록된 정보는 경찰청 별도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리.
- 구축 시부터 키보드 보안, 웹구간 암호화, 서버 보안, DB 암호화, 지문데이터 암호화 등 5단계 보안정책 반영. 유출 위험 전혀 없음.

실종어린이 찾기 외 목적으로 활용 불가

- 실종아동법 등에 따라 실종 어린이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 정보 이용 불가능.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문은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경찰관이라도 임의로 시스템을 조작하여 확인할 수 없도록 구축. 일반수사 관련 활용 불가능.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 가능

- 어린이 연령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
-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즉시 폐기.

‘안녕?! 오케스트라’로 국제 에미상 결선 진출한 이재준 센미디어 대표

“용재 오닐과 안산 다문화 아이들 함께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센미디어

지난해 9월 4부작으로 TV에 방영된 ‘안녕?! 오케스트라’의 한 장면. 리처드 용재 오닐이 다문화 아이들에게 악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전민규 기자

세계적인 음악가 리처드 용재 오닐과 24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다문화 프로젝트 ‘안녕?! 오케스트라’(연출 연왕모, 서동현, 도수정)가 오는 11월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 에미상의 예술 프로그램 부문 결선에 진출했다.

올해 결선에 진출한 한국 프로그램은 MBC의 ‘휴먼다큐멘터리 사랑 2012’와 ‘안녕?! 오케스트라’ 두 편뿐이다.

국제 에미상은 국제TV예술과학아카데미(IATAS)가 매년 9~11월 주최하는 시상식이다. 캐나다의 반프 TV페스티벌,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TV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방송상으로 불린다. 에미상이 미국 내 지상파방송 축제인 데 반해 국제 에미상은 미국을 제외한 나라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07년 MBC가 제작한 ‘휴먼다큐멘터리 사랑–너는 내 운명’이 국제 에미상 결선에 진출한 데 이어 2010년에는 ‘휴먼다큐멘터리 사랑–풀빵엄마’ 편이 한국 최초로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수상했다. 한국 작품이 국제 에미상 예술프로그램 부문에 오른 것은 ‘안녕?! 오케스트라’가 처음이다.

‘안녕?! 오케스트라’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안산 다문화가정 아이들 24명으로 결성한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4부작으로 TV에서 방영돼 호평받았다. 최근 80분 분량의 극장판으로 다듬어져 오는 11월 국내 영화관에서도 개봉될 예정이다.

‘안녕?! 오케스트라’의 결선 진출이 더 의미 있는 건 열악한 제작 환경에 있는 외주제작사가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센미디어는 SBS와 경인방송 프로듀서를 하다 독립한 이재준(45) 대표와 ‘세친구’, ‘압구정 종가집’ 등을 집필한 목연희 작가가 2005년 12월 설립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2011년 가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MBC 크리에이브팀의 이보영 CP와 식사를 하다 다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다문화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완득이〉도 한창 인기를 끌 때였어요. 그러던 중 MBC에서 이보영 CP가 올린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안이 채택돼 시동을 걸게 된 거죠. 센미디어가 제작을 맡았고, MBC를 통해 전파를 탔습니다.”

용재 오닐을 섭외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용재 오닐이 생각보다 흔쾌히 프로그램 참여 승낙을 하더군요. 사실 용재 오닐도 미국에 입양된 한국인 어머니와 아일랜드계 미국인 조부모 밑에서 성장한 다문화가정 출신입니다. 2012년 3월 24일에 아이들의 오디션을 봤고, 2012년 3월 말 첫 합숙에 들어갔죠. 제작비도 없었고 악기도 없고 연습장소도,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도 구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재 오닐과 선생님들의 헌신, 아이들의 노력, 제작진들이 고생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작을 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첫 합숙을 하고 주 2회씩 모여서 연습한 지 3개월 만인 7월 1일, 용재 오닐이 무대에 오르는 ‘2012 디토 페스티벌’이 열린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아이들이 섰을 때였죠. 태어나 악기를 한번도 안 만져본 아이들이 겨우 3개월을 연습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합주를 할 수 있을까, 제작진들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제작진 욕심이 너무 과해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잘해 냈어요.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공연이 끝나고 무대 아래로 내려와 아이들과 용재 오닐, 제작진들이 다 함께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이 기억에 가장 크게 남네요.”

이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이들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게임기만 쳐다보던 한 아이도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났고, 아이들의 표정도 훨씬 밝아졌고요. 저희도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아이들 중 스타가 나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걸 촬영하면서 깨달았어요. 스타 한 사람이 오케스트라 전체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합심하는 모습 속에서 감동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대기업의 한 임원이 직접 전화해 ‘프로그램을 감동적으로 봤다. 아이들을 지원하고 싶은데 도와줄 길이 없겠느냐?’고 물어오기도 했죠. 그 분은 지난해 말 아이들이 안산에서 단독 콘서트를 할 때 모든 비용을 대셨어요.”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이들이 계속 음악을 하게 할 수 없을까 방법을 찾던 중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응모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했어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안산시를 찾아가 저희의 의도를 말씀드렸고, 안산시도 흔쾌히 응해 선정이 된 겁니다. 현재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이들이 안산문화재단에서 안산시 소속 어린이 오케스트라로 등록돼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외주제작사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종합편성채널 개국, 한류 바람 등으로 방송도 국내외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려면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여러 길을 통해 열려야 합니다. 정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양산될 겁니다. 방송사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아량도 필요하고요.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한 컷을 찍기 위해서는 방송사, 외주제작사 가릴 것 없이 함께 뛰어야 합니다.”

글·박미숙 기자

영월아프리카미술박물관에서 열린 '길위의 인문학–모던아트 속의 아프리카 미술'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전시물들을 보고 있다.

민화 속 그림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조선민화박물관에서 열린 '길위의 인문학' 주제는 '꿈을 담은 우리 그림, 민화이야기'다.

"색다른 그림은 창의성을 깨워주죠"

아프리카미술과 전통민화의 세계를 구경하며 상상의 나래 '활짝'

산과 들에 울긋불긋 단풍이 들었지만, 가을 동강에 비친 산 그림자는 사무치게 짙은 초록이다. 박물관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고장, 강원도 영월군이다. 영월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영월아프리카미술박물관으로 가는 길은 내내 동강 변이다.

"아프리카박물관은 가찹고, 민화박물관은 김삿갓 가는 중간이래요. 김삿갓 거(문학관)도 볼 만해요."

택시 운전기사의 말투에서 강원도다움이 물씬 풍긴다. 영월군은 사진·곤충·미술·책·화석 등 종류도 다양한 20여 개 박물관이 자리한 박물관의 고장이다.

지난 8월 24일부터 12월 초까지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의 65개 박물관 가운데 7개가 영월군에 있다. 영월아프리카미술박물관과 조선민화박물관 이외에도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인도미술박물관, 호안다구박물관, 호야지리박물관 등이 전시물과 연계한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영월군 김삿갓면에서 서로 인접한 아프리카미술박물관과 민화박물관은 이왕 영월까지 온 김에 두 박물관의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 운영도 하고 있다. 아프리카미술박물관의 '길위의 인문학' 주제는 '모던아트 속의 아프리카 미술', 민화박물관은 '꿈을 담은 우리 그림, 민화이야기'다.

영월 김삿갓면에 이웃해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

11월 5일 태백 황지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들이 각각 두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이 오전에 민화, 오후에 아프리카박물관을 찾는 동안 다른 한 팀은 오전에 아프리카, 오후에 민화박물관을 찾아 전문해설을 들으며 전시물을 보고, 체험노트를 적고, 가면을 만들거나(아프리카박물관) 민화패널(위 책사진) 위에 채색하는(민화박물관) 체험시간을 가졌다.

아프리카미술박물관은 외양부터 이국적이다. 뾰족한 천막 모양의 박물관 입구건물, 이곳에서 이어진 전시건물은 얼룩말같이 색칠되어 있다. 박물관 앞 잔디밭 위에는 흰색 천막 옆에 낙타와 양들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놀고 있다. 물론 조형물들이다. 이곳에는 북부에서 남부까지 아프리카의 토착 문화와 전통예술, 아프리카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전통 조각과 현대조각, 각종 모양의 마스크, 그림, 공예품 등이 전시돼 있다.

가면전시실에서 황지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 30여 명이 이곳 박물관의 문미선 실장으로부터 문답식 설명을 듣고 있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할 때 가면을 쓸까요?"

"싸울 때요." "축제할 때." "결혼할 때요."

"또?"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외쳤다. "칠순 잔치할 때요!"

와하하~. 아이들 사이 웃음이 번졌다.

"비슷한 게 있어요. 성인식할 때."

아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은 함께 지켜보던 어른들까지 몰입하게 만들었다.

축제 때 사용하는 가면은 알록달록 화려했고, 장례식 가면은 우울한 표정에 검정 일색이다. 동물 모양 가면도 일종의 범주가 있었다. 각 부족들이 추앙하는 동물의 얼굴을 본뜬 가면도, 사람 얼굴에 추앙하는 동물의 뿔만 붙인 형태도 있었다.

문미선 실장은 "우리 박물관의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원시적이고 미개하다는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아프리카 미술이 가진 신비롭고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참가자 내부의 창의성을 깨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이곳에서 아프리카 미술여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 학교의 또 다른 2학년 아이들 30여 명은 민화박물관에서 민화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민화박물관에는 비록 이름 없는 작가들이 그렸지만 생활공간을 장식하고 잔치자리를 빛낸 소박한 조선시대 민화 180여 점과 현대민화 100여 점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민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까치와 호랑이죠. 까치는 기쁜 소식을,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용맹함을 상징해요. 연꽃은 고고한 선비, 꽃과 나비는 사이 좋은 부부를 뜻해요."

민화 따라 이어지는 해설사의 설명은 민화를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민화박물관의 이한솔 실장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800여 명의 초·중학생들이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교사들이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일찍 알게 됐으면 더 많이 참여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황지초등학교 허연숙 교사(2학년 학년부장)도 "박물관에서 경험하는 생생한 설명과 체험은 아이들에게 무척 유익했다"며 "같은 초등학생이라도 연령대에 따라 인지능력이 크게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통 민화와 아프리카 미술세계로의 탐험은 아쉽게 하루로 끝났다. 하지만 아이들 각자에게는 새로운 인문학의 세상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사진·김현동 기자

한국사립박물관협회 ☎070-4115-9963, 02-2113-8023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교육신청 museumonroad.org

"편식은 나빠요"… 체험! 튼튼 먹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11월부터 전국 돌며 어린이·청소년 대상 올바른 식습관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튼튼 먹거리 탐험대' 차량 안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싫어 싫어~ 너무 싱겁단 말이야!" "짜게 먹으면 안 좋다니까. 그리고 엄마가 편식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니?" 서울 대흥동에 사는 주부 박윤미(34)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오늘도 밥상머리에서 한바탕했다.

"소금을 잔뜩 친 고기가 아니면 절대 입에도 안 대려고 해요. 채식과 육식이 골고루 조화돼야 건강에도 좋은데 (아들이) 자꾸 육식만 고집하니 고민입니다. 또 몸에 안 좋은 탄산음료는 어찌나 찾는지 걱정이에요."

박 씨처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번쯤 자녀의 식습관에 고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싫다는 음식을 무작정 강요하면 역효과가 나기 쉽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자녀에게 자연스레 알려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부모들의 고민 해결에 나섰다. 식약처는 11월부터 어린이,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튼튼 먹거리 탐험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부3.0 정책 구현의 일환으로 11월 5일 서울 광진구 소재 성자초등학교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청소년 단체, 수련시설 등을 찾을 예정이다.

식약처 강백원 영양안전정책과장은 "특수 제작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위탁 운영하는 튼튼 먹거리 탐험대 차량으로 학교당 주 3일(1일 2회)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튼튼 먹거리 탐험대 차량은 약 3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 제작한 9.5톤짜리 초대형 특수 차량이다.

이 차량을 학교 운동장에 펼치게 되면 교실 크기로 확장된다. 실내에는 요리실습 시설, 최신 미디어교육 시설, 냉방과 온방 시설, 자가발전 시설 등을 갖췄다. 차량 안에서는 ▶요리 체험 ▶생활 속에서 나트륨 줄이기 ▶고열량·저영양(탄산음료 등) 식품 섭취 줄이기 ▶손 씻기와 같은 식중독 예방 이론 교육과 영상 교육 등 주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들은 요리 체험을 통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음식을 맛보며 올바른 식습관을 체득할 수 있다. 예컨대 나트륨의 주요 섭취원인 소금 대신에 향이 강한 레몬즙 등을 넣은 저나트륨 레시피 제품을 직접 만들어 시식해 봄으로써 저나트륨 식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강백원 과장은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체험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건강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이창균 기자

튼튼 먹거리 탐험대 체험 프로그램 참여 www.dodreambus.net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70

1 2년 연속 홈런왕과 타점왕을 휩쓴 넥센 박병호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동렬, 장종훈, 이승엽에 이어 역대 네번째다.
2 LG 이병규는 38세 11개월 10일의 나이로 타격왕에 올랐다. 역대 최고령 타격왕 MBC 백인천(38세 10개월 17일)의 기록을 31년 만에 다시 쓴 것이다.
3 데뷔 5년차인 두산 '왼손 투수' 유희관은 상무를 전역하고 올 시즌 팀에 복귀해 10승7패, 평균 자책점 3.53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냈다.
4 NC 손민한은 2년의 공백을 털고 28경기에 등판해 5승6패9세이브 평균자책점 3.43을 기록했다. 불안했던 NC 불펜은 손민한의 가세로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5 역대 여섯번째로 2년 연속 20홈런-20도루 클럽에 가입한 SK 최정. 매 시즌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로 성장했다.

역전에 재역전… 올 야구는 '인생 축소판'

정규시즌부터 한국시리즈까지 끝장 승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격언 실감

2013시즌 프로야구가 삼성의 한국시리즈 우승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 프로야구는 역대 세번째로 많은 644만 1,855명의 팬들이 야구장을 찾아 다시 한 번 높은 인기를 실감했다. NC의 1군 합류로 사상 첫 9구단 시대를 연 2013시즌은 달라진 일정 속에 어느 때보다 순위 다툼이 치열했다.

막내 NC의 신선한 돌풍 막내 구단 NC가 1군에 합류하자 일각에서는 경기력 저하를 우려했다. 실제로 개막 후 한 달 동안 보여준 NC의 경기력은 우려대로였다. 그러나 5월 들어 NC는 거짓말처럼 달라졌다. 실책이 줄어들면서 수비가 안정됐고 투타 균형이 맞아들어 가면서 돌풍의 팀이 됐다. 기세는 시즌 막판까지 이어졌다. 최종 성적은 52승4무72패, 승률 0.419로 KIA와 한화를 제치고 7위를 차지했다.

돌풍의 원동력은 신구 조화였다. 타선은 FA(프리 에이전트)로 영입한 이호준이 중심을 잡았고, 2차 드래프트와 특별 지명으로 영입한 중견 선수들이 제 기량을 펼쳤다. 마운드에서는 외국인 듀오 찰리와 에릭이 15승을 합작했고 이재학이 10승을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학은 11월 4일 열린 2013 프로야구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서울야구 르네상스 올해 프로야구는 잠실을 홈으로 하는 LG(2위)와 두산(4위), 목동구장을 쓰는 넥센(3위)이 나란히 가을야구 초대장을 받으면서 '서울야구'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사상 처음으로 준플레이오프(준PO)와 플레이오프(PO) 전 경기가 서울에서 치러지면서 어느 때보다 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넥센-두산의 준플레이오프가 펼쳐진 그라운드는 더없이 뜨거웠다. 1~4차전 모두 1점차로 승패가 갈리는 피 말리는 승부가 펼쳐졌는데 특히 마지막 5차전은 한 편의 드라마였다. 넥센 박병호는 0-3으로 뒤진 9회말 2사 후 동점 3점 홈런을 폭발시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야구 명언이 팬들의 뇌리에 새겨졌다. 그러나 '뚝심'의 두산은 연장 13회 5점을 쓸어담으며 초반 2연패 뒤 리버스 스윕을 달성했다.

LG 이병규 31년 만에 최고령 타격왕 기록 갈아치워

PO에서는 '잠실 라이벌' LG와 두산이 13년 만에 맞붙었다. 인기가 많은 두 팀의 경기에선 암표가 3~4배 가격으로 팔리기도 했다. PO에서는 수비와 주루 등 작은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 LG는 4경기에서 8개의 실책을 쏟아내며 무너진 반면 두산은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앞세워 3승1패로 한국시리즈(KS)에 올랐다. 승자는 기쁨의 눈물을, 패자는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지만 팬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2013년 서울의 가을이었다.

신기록 퍼레이드 다양한 신기록도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먼저 삼성은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페넌트레이스와 한국시리즈를 제패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삼성 선수들의 신기록 행진도 이어졌다. 삼성 마무리 투수 오승환은 지난 4월 7일 대구 NC전에서 역대 최초로 250세이브를 달성하며 역사를 새로 썼다. '국민 타자' 이승엽은 6월 14일 1,320경기, 36세 11개월 27일의 나이로 역대 최소경기·최연소 350홈런 기록을 작성했다. 엿새 뒤인 6월 20일에는 통산 352호 홈런을 터뜨려 양준혁(351개)의 기록을 넘어섰다.

LG 이병규(등번호 9)는 타율 0.348을 기록, 38세 11개월 10일의 나이로 타격왕에 올라 프로 원년(1982년) 백인천(MBC)이 작성한 역대 최고령 타격왕(38세 10개월 17일) 기록을 31년 만에 다시 썼다. 또한 그는 7월 5일 목동 넥센전에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 이 부문의 역대 최고령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LG 마운드에서는 역대 투수 최다 출장기록(899경기) 보유자인 류택현이 통산 122홀드를 기록, 정우람을 제치고 통산 최다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2년 연속 홈런왕과 타점왕을 휩쓴 해결사 박병호(넥센)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우수선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2년 연속 수상은 선동렬, 장종훈, 이승엽에 이어 역대 네번째다. 그밖에 김응용 한화 감독은 국내 감독 최초로 1,500승 고지를 밟았고 SK 최정은 역대 여섯번째로 2년 연속 20홈런-20도루 클럽에 가입했다.

샛별의 등장·베테랑 귀환 올 시즌은 새 얼굴들이 등장해 활력을 불어넣었다. 더불어 잊혀지던 베테랑들이 부활하면서 야구 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유희관(두산)은 데뷔 5년차인 올해 자신의 이름 석 자를 팬들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상무를 전역하고 올 시즌 팀에 복귀한 그는 5월 말부터 선발로 나서 10승7패 평균자책점 3.53을 기록했다. 두산 왼손 투수가 10승을 달성한 건 1988년 윤석환(13승) 이후 무려 25년 만이다. 유희관은 포스트시즌에서도 팀의 에이스로서 제몫을 다했다.

LG 김용의와 문선재는 올 시즌 1군 백업으로 자리매김하며 팀의 11년 만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힘을 보탰다. 김용의는 109경기에 나서 타율 0.276·5홈런·34타점을 기록했고, 문선재는 93경기에서 타율 0.267·4홈런·25타점으로 활약했다. SK 2년차 내야수 한동민 역시 타율 0.263·14홈런·52타점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베테랑들의 부활도 잇따랐다. 삼성 배영수는 14승을 거둬 SK 세든과 함께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다. 지난 2004년 17승으로 다승 1위에 오른 배영수는 9년 만에 같은 부문 타이틀을 차지했다. NC 손민한은 2년의 공백기를 털고 28경기에 등판해 5승6패 9세이브 평균자책점 3.43을 기록했다. 불안했던 NC 불펜은 손민한의 가세로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골든글러브 주인공 후보들 남은 관심은 포지션별 최우수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에게 쏠린다. 내야수는 윤곽이 드러났다. 1루수는 'MVP 2연패'에 빛나는 박병호, 2루수는 정근우, 3루수는 최정, 유격수는 강정호가 가장 강력한 후보다.

반면 외야수는 대혼전이다. 성적만 놓고 보면 이병규 외에 손아섭(롯데), 최형우(삼성), 박용택(LG) 등이 눈에 띄지만 김현수, 이종욱, 민병헌(이상 두산), 나지완, 신종길(이상 KIA), 김종호(NC), 김강민(SK) 등도 팀 공헌도 등을 고려하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투수는 신생팀 NC를 7위로 이끈 평균자책점 1위 찰리와 다승 1위 세든이, 포수는 강민호(롯데)와 양의지(두산)가 각각 2파전을 벌이고 있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12월 10일 열린다. G

글·유병민(일간스포츠 기자)

2단계 정부세종청사엔 '새집증후군' 없다

6개 부처 12월 이전… 실내공기 오염주범 사무용 가구 친환경제품으로 바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의 청사 이전을 앞두고 2단계 청사구역에서 외관 정비 및 조경 작업이 한창이다.

11월 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2단계 공사구역 일대는 평소보다 한결 분주한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건물 밖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다. 또 인부들의 잰 손놀림, 발걸음과 함께 굴삭기 등의 중장비도 곳곳에 대거 동원돼 작업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

신축 세종청사 가운데 2단계 구역 준공이 코앞에 임박했기 때문이었다. 청사 건립도 아파트나 일반 빌딩과 마찬가지로 조경과 외관 작업은 맨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정부부처의 2단계 세종청사 이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가 이번 이전의 대상이다. 이들은 내달 13일부터 일제히 세종청사로 이전을 시작한다.

정부세종청사는 지난해 이 무렵 1단계 이전에 이어 이번 2단계 이전으로 위용을 갖추게 됐다. 건축 측면에서 본다면, 바닥 면적만 수십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국내에서 손꼽힐 만한 랜드마크의 탄생이 임박한 것이다.

지난해 1단계 청사 이전 직후 근무자들은 한동안 '새집증후군(새집으로 이사한 뒤 나타나는 두통·피로·호흡곤란·천식·비염·피부염 등의 증상)'에 시달려야 했다. 근무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근무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새집증후군은 세종청사 공공의 적 1호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단계 이전 부처 종사자들은 새집증후군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 청사의 실내 공기를 오염시킨 주범은 가구와 비품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내에서 휘발성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배출원은 건축물 자체와 실내 비품·가구 등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조사 결과 책상·의자·칸막이 등 가구와 비품 등에서 유해물질이 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입주 부처를 대상으로 친환경 사무용 가구 등을 들여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들어서는 정부세종청사 11동 1층에 친환경 모델 사무공간을 꾸며놓기도 했다. 친환경 비품들을 비치한 이 모델 공간의 실내 오염도는 실측을 통해 파악된다. 상대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사무용 집기나 비품을 들여놓으면 실내 공기의 질을 정상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사실상 지난달 말로 내부 공사가 거의 완료된 만큼 입주 때까지 계속 환기함으로써 새집증후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는 하늘에서 보면 건물 형태가 용을 연상시킨다. 전체적으로 고층 건물이 아닌 데다 넓게 펴져 있어 부처 간 이동거리가 길게는 3.5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긴 편이다. 식당 등 편의시설이 촘촘히 박혀 있지 않으면 근무자들로서는 이동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을 뺏겨야 한다. 안전행정부가 2단계 공사를 하면서 편의시설 확충에 특히 신경 쓴 것도 이 때문이다.

구내식당·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대폭 확충

한 예로 점심시간에 자리가 모자라 큰 불만을 샀던 식당이 당초 계획했던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났다. 수용 인원 기준으로는 애초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어나 한꺼번에 1,640명 정도가 앉아 식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당초 계획에 없었던 푸드코트를 개설하고 이를 종합매장과 연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청사 주변에 아직까지는 상가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종합매장은 660평방미터 규모의 종합쇼핑몰로 운영된다.

1단계 청사 입주 때 인기를 끌었던 어린이집도 대폭 확충된다. 당초 계획에는 2개소 400명 수용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 3개소 600명 정원으로 규모가 50퍼센트 늘어났다. 어린 자녀를 둔 근무자들에게 특히 희소식이다.

신세대 공무원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체력단련실 또한 당초 계획한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었다. 체력단련실에는 운동처방실도 딸려 있다. 또 은행은 이격 점포를 포함해 기존 계획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났다. 커피숍은 이번에 입주가 이뤄지는 청사 9동부터 14동까지 6개동 모두에 한 곳씩 들어선다. 현장공사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행정부 청사이전사업과 이룩 주무관은 "모든 편의시설이 12월 13일 입주에 앞서 가동될 수 있도록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

글과 사진·김창엽(자유기고가)

2천세대 아파트 입주 앞둔 세종청사 주변
스카이라인 바뀌며 '사람 사는 맛' 물씬 날듯

정부세종청사는 1년 전만 해도 '휑하다'라는 수식어가 딱 들어맞을 정도로 주변 환경이 황량했다. 도시조성 기반공사가 한창인 허허벌판에 을씨년스럽게 청사 건물만 홀로 서 있었던 탓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청사 일대의 풍광이 크게 달라졌다. 우선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었다. 우뚝우뚝 솟은 주변의 아파트들로 인해 더 이상 외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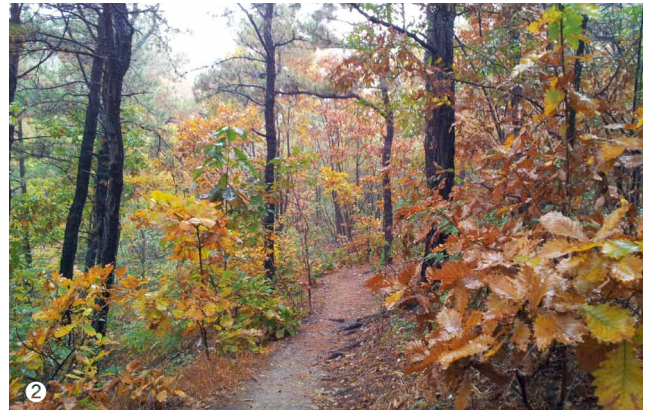
정부청사 인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 가운데 올해 말까지 입주 물량은 2천 세대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들이 적지 않아 내년 상반기면 청사 주변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가구수 기준으로 모두 6천세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찍이 자리를 잡은 6,500세대 규모의 첫마을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내년 이맘때쯤이면 청사 인근 1생활권의 거주 인구가 첫마을의 거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보여 청사 주변이 세종시의 중심 거주지역으로 떠오르게 된다.

또 청사 근무자 숫자도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에 비해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사람 사는 곳이라는 느낌이 한결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가 사람들로 북적거릴 정도는 아니더라도 밤이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처럼 변해버리는 기이한 풍경은 더 이상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지난해 1단계 이전 청사 근무자들에 비하면 이번 2단계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게 됨을 의미한다.

고양 한북누리길·서삼릉누리길

그 세월 수많은 장삼이사 사각사각 이 낙엽들을 밟았느냐

경기 고양시는 올해로 탄생 600년을 맞는다. 500년 조선왕조의 배후지로서 북한산성과 유명 사찰, 그리고 서삼릉과 서오릉 등 왕조의 흔적이 서려 있는 곳이다. 총 6개 코스가 있는 고양누리길은 조선왕조의 역사와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각각의 코스는 6~12킬로미터로 한나절이면 걷기에 충분하다.
이중 한북누리길(6.5킬로미터)이 시작되는 북한산성 입구에서 서삼릉누리길(8.3킬로미터)이 끝나는 원당역까지 13.8킬로미터를 걸었다. 한나절 코스 2개를 이어 걸으면 당일 산행으로 적당하다.

1 솔개약수터를 빠져나와 농협대학으로 가는 길에 만난 은행나무 낙엽길. **2** 임진왜란 때 명나라 이여송이 왜군에게 패한 뒤 복수를 다짐하며 '칼을 갈았다'는 숫돌고개 상수리나무숲길.

한북누리길의 '한북'은 북한산의 북쪽이라는 뜻으로 시작점은 북한산성 매표소 가기 전 창릉천을 따라 흐르는 도로의 버스 정류장이다. 이곳에 어른 허리께 높이의 말뚝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갈색 말뚝에 녹색 글씨로 누리길을 표시하는 'N'자 표시가 돼 있다.

11월의 첫번째 주말 한북누리길에서 도보 여행을 시작했다. 북한산성 입구는 북한산 등산코스에서도 특히 붐비는 곳이다.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지하철 구파발역에서 버스를 타고 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산으로 향한다. 반면 누리길 도보 여행자가 돼 반대 방향으로 걷게 되니 등산객과 교차돼 기분이 묘했다. 특히 이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호젓한 도보 여행길 묻어나는 흙냄새

첫번째 기점은 북한산 입구에서 북한산 온천까지다. 2킬로미터에 약간 못 미치는 길, 빠른 걸음으로 30분이면 족하다. 온천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여는데, 산행을 마친 등산객보다는 가족 단위 온천 여행객이 많았다.

호젓한 도보 여행길은 온천 뒤편으로 올라간 뒤 시작됐다. 온천을 마주보고 왼편으로 고샅길이 나 있는데, 이 길을 따라가면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 반드시 위쪽으로 가야 한다. 100여 미터 정도 걸어가면 이정표 말뚝이 보인다. 옥녀봉(205미터)으로 올라가는 산책로로 고갯마루는 중고개로 불린다.

중고개에서 왼편으로 가면 옥녀봉, 고개를 바로 넘으면 덕양구 오금동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옥녀봉 정상은 5분이면 갈 수 있는데, 이곳에서 북으로 방향을 틀면 노고산(495미터)이다.

옥녀봉에서 내려와 싸리나무쉼터까지는 약 1.5킬로미터, 20분 정도 걸렸다. 이 구간은 예나 지금이나 군사적 요충지로 통한다. 고양·양주에서 서울 구파발로 진입하는 길이며, 6·25전쟁 당시 영국군과 중국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해피밸리'가 이 부근에서 멀지 않다.

도보 여행자는 싸리나무쉼터로 가기 전 371번 지방도를 건너야 하는데, 서울시민들이 휴양지로 애용한 일영·송추유원지가 이곳에서 멀지 않다.

맑은 날 싸리나무쉼터에서는 북한산과 노고산 등이 보이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린 데다 산안개까지 잔뜩 끼어 시계가 좋지 않았다. 오금동과 지축동 사이 작은 옛길 하나를 다시 넘는데, 한양과 고양을 오가는 이들의 지름길이었다. 왕의 행차나 고위 관리, 사신들이 주로 의주대로를 이용한 반면 이 길은 소박한 서민들의 길인 것이다. 의주대로는 현재의 1번 국도로 구파발에서 삼송역 방향 큰길이다.

조금 더 가면 북한산전망대가 있다. 오금동과 지축동의 경계지점으로 고양시를 동서로 가르는 한북누리길 중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다. 북한산의 주요 봉우리인 인수봉(810미터)을 비롯해 백운대(836미터), 의상봉, 향로봉, 비봉 등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인왕산과 안산을 조망할 수 있다.

삼송역 5번 출구는 서삼릉누리길 시작

어느새 한북누리길의 끝인 지하철 삼송역이 코앞이다. 주유소 앞에서 육교를 건너 삼송역에 닿았다. 삼송역 5번 출구, 한북누리길의 끝이자 서삼릉누리길의 시작점이다.

근방에서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다시 길을 나섰다. '이 길에는 또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도보 여행자의 발걸음을

서삼릉의 단풍. 이야깃거리가 많아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다.

한북누리길은 북한산의 십여 개 봉우리를 조망할 수 있다.

숫돌고개를 내려오면 솔개마을의 약수터를 만난다.

가볍게 하는 모티브다. 삼송역에서 큰길을 따라 100여 미터쯤 가니 말뚝 이정표가 보였다. 이게 없었으면 '길을 잘못 들었나'라는 생각이 들 뻔했다. 말뚝을 이용해 오른편으로 올라가라는 표시를 하고 있었다. 콘크리트 골목길을 150미터쯤 올라가니 오른편으로 상수리나무숲이 보였다. 다시 보이는 누리길 이정표가 그지없이 반갑다.

상수리나무숲길에서 솔개약수터까지 약 1.5킬로미터 정도 이어진 숲은 호젓하고 편안했다. 맞은편에서 낙엽을 밟으며 다가오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만큼 길은 고요했다. 서삼릉누리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길이었다.

숲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숫돌고개 이정표다. 길에 얽힌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설명 해설판'이 설치돼 있었다.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 조선의 원병으로 출병한 명나라 이여송 군대는 이 고개에서 왜군을 맞아 승전보를 울렸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편안하게 서울로 입성할 준비를 하던 이여송은 북한산 북면 창릉천에 주둔한 왜군의 매복에 걸려 크게 패했다. 퇴각 명령을 내린 이여송은 이 고개에서 칼을 갈며 왜군에게 복수를 다짐했다. '칼을 갈았다'해서 붙여진 이름이 숫돌고개, 한자로는 여석령(礪石嶺)이다. 칼을 간 보람이 있었던지 명군은 권율 장군이 행주에서 큰 승리를 해 일본군이 물러난 틈을 타서 다시 숫돌고개를 넘어 남으로 진군할 수 있었다.

숫돌고개에서 숲길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면 농협대학까지 1.86킬로미터다. 길을 거슬러보면 삼송역에서 숫돌고개까지 약 1.2킬로미터, 짧은 길이지만 천천히 걸어 30분 걸렸다. 5분여를 내려가니 '서삼릉누리길 거북바위 이야기' 해설판이 보였다.

숲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드니 약수터가 있었다. 지도상에는 '솔개약수터'로 나와 있는데, 약수터에는 분명 '천일약수터'라 쓰여 있었다. 비 온 뒤라 물을 뜨지 않았다. 대신 약수터 위편으로 샛노란 은행나무 잎이 계단을 수놓은 아름다운 길이 보여 무작정 따라갔다.

해설판에서 삼송리의 작명에 얽힌 설명을 볼 수 있었다. 고양, 특히 삼송리 근방에는 조선시대 왕릉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선대왕의 능(陵)을 찾는 임금의 행차가 연중 몇 차례씩 있었다. 행렬은 서오릉을 지나 서삼릉으로 이어졌는데, 소나무 세 그루가 유난히 눈에 띈 곳이 있었으며, 그래서 삼송리(三松里)라 이름 붙여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 마을은 '소나무가 무성한 큰 고개'라 하여 솔개마을이 됐다.

푸른 초지와 샛노란 은행나무가 일품인 종마목장

솔개약수터에서 농협대학으로 가는 길은 비록 찻길이었지만 은행나무 낙엽길이 약 500여 미터 이어졌다. 농협대학을 넘어서면 원당경주마목장이다. 원당목장에는 주말을 맞아 소풍을 나온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았다. 찻길에서 목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왕복 1.2킬로미터.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15분이면 충분한지라 목장으로 진입했다. 역시 은행나무 낙엽길이 길게 이어졌다. 신기한 것은 11월인데도 목장 초지에는 아직 푸른 잡초가 무성했다. 샛노란 은행나무와 푸르른 잡초가 진한 대비를 이뤘다.

서삼릉이란 고양시 원당동에 소재한 효릉(孝陵)·희릉(禧陵)·예릉(睿陵)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중종(1488~1544)의 계비 장경왕후 윤 씨(1491~1515)의 희릉을 조성하면서 서삼릉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중종의 아들인 인종(1515~1545)과 비 인성왕후 박 씨(1514~1577)의 효릉, 철종(1831~1863)과 비 인철왕후 김 씨(1837~1878)의 예릉이 자리 잡았다.

능 담장 안으로 들어가면 묘소라기보다는 숲 공원에 가깝다. 한창 무르익어가는 서삼릉의 단풍을 만끽할 수 있다. 서삼릉은 동절기(11~2월)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 휴원이며, 단체일 경우 문화관광해설사를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서삼릉을 지나오면 한국스카우트연맹을 지나 수역이마을에 다다른다. 이 마을에도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집들이 많다. 배가 고프면 이곳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것도 좋다. 수역이마을에서 다시 상수리나무 낙엽이 수놓은 작은 고샅길을 지나면 배다리술박물관이다.

목장 진입로 입구에서 스카우트연맹, 수역이마을을 지나 배다리술박물관까지는 약 3킬로미터, 1시간 거리다. 술박물관에서 10여 분 내려오면 지하철 원당역. 서삼릉누리길은 여기서 끝난다. 3호선 삼송역에서 시작해 원당역까지, 지하철을 타면 3~4분이면 올 수 있지만 굽이굽이 길을 돌아오면 2~3시간이다. 하지만 몇 십 배 보람이 있는 길이다. G

글과 사진 · 김영주(여행칼럼니스트)

여행수첩

갈만한 곳

배다리술박물관 고양에서 5대째 술도가를 이어온 박관원 · 상빈 부자(父子)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개관했으며, 2층에 5대째 소장해온 전통 술 관련 도구를 전시하고 있다. 1층에서는 직접 빚은 막걸리를 시음할 수 있다. 오전 10시~오후 6시(주말 오후 7시) 개관,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 031-967-8052

한북누리길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북한산성 입구까지 가는 방법은 3호선 구파발역에서 내려 버스로 이동하면 된다. 버스는 34번(의정부~은평구), 704번(양주~서울역)을 타면 된다.

서삼릉누리길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3호선 삼송역 5번 출구와 원당역 1번 출구를 이용하면 된다. 시내버스는 567번(금촌~신촌역), 7733번(교하~구파발역)이 다니며 마을버스는 43번(삼송역~원당역)이 있다.

코끝도 아닌 콧등을 쳐? 강원 정선 '콧등치기 국수'

향토 음식 중에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것이 많지만 강원도의 '콧등치기국수'는 그 중에서도 유별난 축에 속한다. 메밀로 만든 굵고 짧은 면발이 먹을 때 콧등을 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그 발상이 기발하다. 콧등치기의 유래에 대해서는 뜨거운 메밀국수를 먹을 때 코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콧등튀기'라고 부르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다른 해설도 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음식 이름은 대개 음식의 주재료와 부재료, 조미료의 명칭, 요리 방법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끔 신선로처럼 요리 도구가 이름에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식 먹는 장면을 이렇게 생동감 있게 묘사해서 작명한 예는 드문데, 그 착상의 재기발랄함이 요즈음 마케팅 전문가들의 네이밍 기법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콧등치기국수는 다른 이름도 많은데 영월에서는 '꼴두국수'라고 부른다. 어려웠던 시절에 하도 자주 먹으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해서 그런 호칭이 붙었다고 한다. 콧등치기 못지않게 해학적인 명칭이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서글픈 이름이다. 얼마나 먹기가 지겹고 싫었으면 음식에 그런 이름을 다 붙였을까. '꼴두'라는 이름에도 국수가락이 꼴뚜기처럼 시커멓고 못생겨서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다른 설명이 있는데, 이 역시 그리 긍정적인 함의가 있는 이름은 아니다. 그 외에 메밀로 만든 반죽을 칼국수처럼 눌러서 늘여 만든다고 해서 '느름국'이라고도 한다.

국수 이름의 내력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메밀은 배고프던 시절 주린 배를 채워주던 구황작물이었다. 척박한 땅에서도 싹이 잘 트고 생육기간이 짧아 예전부터 먼저 재배한 작물이 흉작인 경우 비상 작물로 많이 재배되었다. 옛날 강원도의 메밀 재배는 주로 화전에서 이루어졌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중환이 저술한 지리서 〈택리지(擇里志)〉에도 "북쪽은 회양에서 남쪽은 정선까지 모두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이며, 물은 모두 서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들어간다. 화전을 많이 경작하고 논은 매우 적다"고 했다.

그러니 미곡이 귀할 수밖에 없었다. 오죽했으면 그 시절 "정선 처녀들은 쌀 서 말도 못 먹어보고 시집간다"거나 "딸 낳거든 평창으로 시집보내 쌀밥 실컷 먹이라"는 말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다 회자되었겠는가. 1970년대 중반 정부의 정리시책으로 인해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화전은 산간지방 주민들의 호구지책이었으며 메밀은 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주요 작물의 하나였다.

중앙포토

세종 때 간행된 재난 시와 춘궁기의 대책을 기록한 서적 〈구황벽곡방(救荒辟穀方)〉에도 구황작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정조실록〉에도 "재해를 입은 곳에 구례(舊例)를 비추어서 메밀을 대신 심으라고 명하였다"는 대목이 보인다. 메밀에 관한 기록은 13세기에 출간된 의약서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에 처음 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입은 그 이전일 것으로 짐작된다. 재미있는 것은 메밀국수가 강원도 산간사람들에게는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지긋지긋한 음식이었지만 양반들은 별식으로도 먹고 선사품으로도 썼던 모양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 김집의 문집인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에는 효자로 유명했던 그가 아버지 김장생이 좋아하는 메밀국수를 사흘마다 올렸다는 대목이 나온다. 또 19세기 말의 공인 지규식이 쓴 〈하재일기(荷齋日記)〉에는 대갓집의 잔치에 메밀국수를 선물로 보냈다는 기록이 곳곳에 적혀 있다. 정선군 아우라지역 앞의 '청원식당'과 정선역 인근의 '한치식당'은 콧등치기국수로 알려진 집들이고 영월의 '신일식당'은 꼴두국수로 유명하다. G

글 · 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소리 없는 변화, '농어민 소득증대'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국은 자국 농어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어촌의 식량공급 기능과 환경보전 같은 비(非) 식량공급 기능을 포괄하는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은 홍수조절 기능, 수자원보호 기능, 수질정화 기능, 토양유실 방지 기능, 대기정화 기능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1970년 8월 25일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농어촌개발공사 광고 '소득증대' 편.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전후로 도시화와 산업화의 주역인 1955년생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며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2012)의 자료를 보면, 2011년에 1만503가구(2만3,415명)가 농어촌에 정착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촌(村)스러워 고마워요"와 같이 귀농·귀촌을 권유하는 정책홍보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현재 농어촌의 생활환경 정비나 경관 개선 같은 정부 주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주민의 고령화 추세, 다문화 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따라 계층 구조 면에서나 인구사회학적 면에서 변화가 깊숙이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많을 터다. 농어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농어촌개발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의 광고 '소득증대' 편(매일경제신문 1970년 8월 25일)을 보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새로운 비전, 운영의 쇄신, 착실한 전진을 강조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저장, 처리, 가공 및 수출 사업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업 체질의 개선, 경영의 합리화, 정밀한 기업 진단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전진을 다짐합니다…" 광고문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부에서는 일찌감치 농어촌 발전 문제를 고민했다.

광고 지면에 투자 회사의 주요 생산품 목록을 나열하고, 1968년 이후의 수출 실적을 소개한 점은 장점을 알리는 광고의 본질적 기능을 살렸다. 그렇지만 연간 100만명을 고용한다는 주장은 허풍에 가까우며, 농어촌개발공사 총재의 사진을 증명사진으로 새겨넣은 것은 요즘 기준으로 볼 때 무척 낯설고 어색하다. 어쨌든 이 광고에서 우리는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수리조합(토지개량조합)으로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급격한 도시화와 농가 인구 감소 속에서도 쌀의 자급 기반을 마련했고, 간척 사업을 통해 서울시 면적의 2.5배에 이르는 국토를 확장해 왔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우리 농어촌의 '삶의 질'은 선진국 농촌이나 우리나라의 도시 지역에 비해 주민의 삶터나 일터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하다. 농어촌이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지역별 격차는 커지고 있다.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라고 하지만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다. 현재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의 소리 없는 변화에 주목하자. 이제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 수립이나 정책홍보 활동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G

글 · 김병희(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거울 보듯 한국인을 분석하다

〈한국인은 누구인가〉

김문조 지음
21세기북스 | 2만8천원

"한국인들이 흔히 보이는 의례적인 언행, 체면치레, 같은 편임을 확인시키려는 행동, 응석, 자기비하적 겸손, 눈치 보기 등은 타인 지향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서른여덟 명의 전문가들은 책에서 한국인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국인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특성들이다.

한국은 대체 어떠한 나라인가? 지난 반세기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세계의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골이 깊어진 세대 간 갈등, '묻지마 범죄'와 같은 병리현상이 사회 곳곳을 침투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어떤 심리가 현재의 모습을 만든 걸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야심차게 준비한 책이 나왔다.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난 8년간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심층 진단하고 분석한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한국인을 발견하는 방식은 서른여덟 가지다.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학과, 법학과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색깔의 코드로 한국인의 심리를 집중 조명한다.

"너는 고향이 어디니?"로 시작되는 지역 구분은 한국인의 독특한 현상 중 하나다. 팔도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는 것이다. 또한 '성형왕국'이라 불리는 외모 지상주의와 상명하달의 군대식 조직문화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특성이다.

한국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설명하기도 한다. "심지가 곧은 것 같으면서도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냄비 근성'을 자주 드러내며, 전통적이되 전통과 무관한 원조(元祖) 만들기에 열심이며, 한을 흥으로 전환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곤 한다." 그 외에도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뤘다. '한국인은 일 중독자인가' '한국 집단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국인은 통일을 원하는가' '남자는 군대에 다녀와야 사람이 되나' 등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던져봤을 법한 질문이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인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관계 속 자아'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중심적 정서가 별로 없다. 관계 속 타인을 중시하다 보니 바로 '우리'라는 의식이 강해진다. '정(情)'에 남다르게 반응하는 코드는 한국인이 가진 이런 심리적 특성 때문이다.

책은 한국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는 데도 지면을 아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모 지상주의는 개인의 존중감과 연관된다. 자아 존중감은 주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외모 규범 일탈자'들은 우울증과 자존감 하락을 경험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외모 낙인'을 조장하는 대중문화에 대한 사회적 감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인의 내면을 폭넓게 다루다 보니 방대한 분량의 책이 되었지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처럼 "맞다, 맞다"하면서 책장을 손쉽게 넘기게 된다.

이 책에서 살피고 있는 한국인의 서른여덟 가지 특성은 결국 오랜 시간에 걸쳐 내면에 축적돼 온 우리의 고유문화라고 할 수 있다. G

글·박지현 기자

새로 나온 책

목요일의 그림

전원경 지음
중앙북스 · 1만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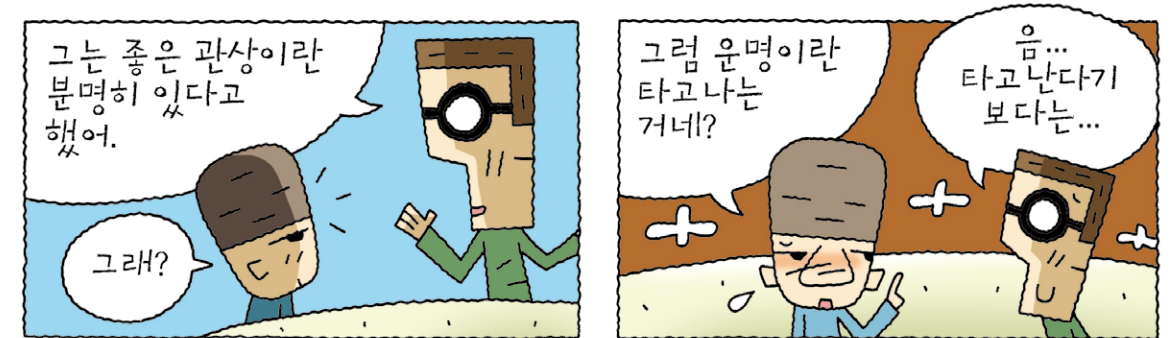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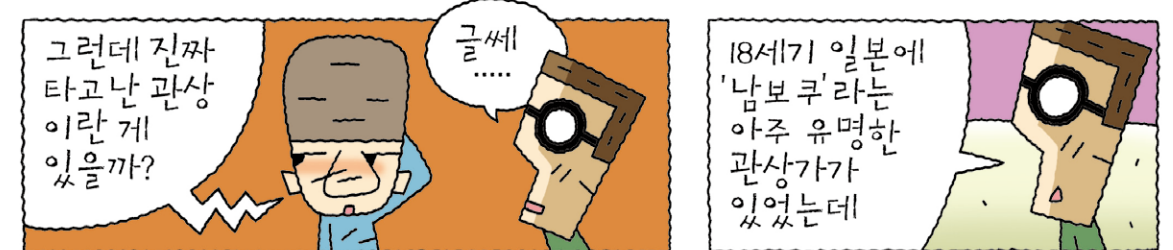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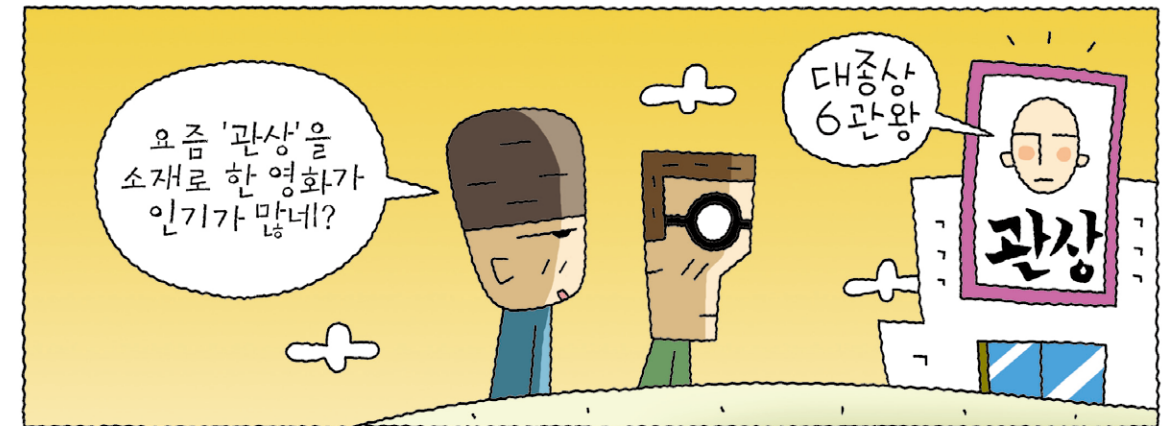
한 주에 하나씩 총 52주 동안 그림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책이다. 신년엔 클로드 모네의 〈해돋이-인상〉을 통해 두려움 없이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기를 응원하고, 밸런타인데이에는 제임스 티소의 〈선장의 딸〉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넌지시 묻는다. 3월 말엔 존 슬론의 〈봄비〉를 보며 상쾌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피로하고 무미건조한 일상에 그림이 주는 힘을 느껴보자.

고전서당

이은봉 지음
동녘 · 1만6천원

동양고전 속에서 현대의 처세를 찾고자 하는 책이다. 저자는 옛 성현들이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스스로를 다스리려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부식, 이황, 이이부터 홍대용, 이옥, 정약용 등 당대의 지식인들을 불러모아 그들의 글과 삶을 녹여냈다. 현대인에게 새로운 각성을 준다. 빠른 것이 미덕인 오늘날, 이 책만큼은 천천히 곱씹어 보는 게 좋겠다.

좋은 관상

글과 그림 · 최영순

인간 일생의 길흉은 오직 그 사람의 절제에 달려 있다.
– 미즈노 남보쿠(일본의 관상가·사상가)

LG아트센터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11월 21일 LG아트센터에서 베토벤의 마지막 3개 후기 소나타를 연주한다.

‘베토벤 대장정’에 마침표

김선욱 〈베토벤 소나타 전곡〉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올해 25세인 피아니스트 김선욱은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연주자로 꼽힌다. 김선욱은 3세 무렵 피아노를 시작해 10세때 금호영재 시리즈로 데뷔했다. 2006년에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국 리즈 피아노 콩쿠르에서 아시아 최초이자 최연소로 우승을 거머쥐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김선욱은 지난해부터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에 도전해 왔다. 32개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완주하겠다는 그의 도전은 시작 자체만으로 이슈가 됐다. 김선욱은 국내에서는 쉽게 감상할 수 없던 초기 소나타부터 잘 알려진 ‘비창’, ‘월광’, ‘열정’ 소나타 등을 연주하며 “초기 소나타에 숨겨진 새로운 진실을 찾아냈다”는 호평을 들었다.

김선욱은 LG아트센터 공연을 끝으로 ‘베토벤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공연에서 김선욱은 베토벤의 마지막 3개 후기 소나타(No.30~32)를 연주한다. 이 3개의 소나타는 베토벤이 청각을 완전히 상실한 뒤 자신의 상상력과 예술혼을 발휘해 작곡한 곡들로 32개 소나타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선욱은 이번 공연에서 인터미션(공연 중 막간의 휴식 시간) 없이 연주할 예정이다.

김선욱은 지난해 독일 본에 있는 베토벤의 생가 ‘베토벤하우스’에서 열린 베토벤 탄생 기념 초청 연주회에서도 공연한 바 있다. 김선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토벤의 피아노나 그가 작곡한 악보를 본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면서 “베토벤 곡은 자신감만으로 연주할 수 없는 곡이며 기본기가 갖춰져야 연주할 수 있는 곡”이라고 말했다.

LG아트센터 관계자는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는 큰 산에 오르는 것과 비견된다”며 “이번 공연은 2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베토벤을 향한 김선욱의 열정이 마침내 폭발적으로 발산되는 연주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G

글 · 김혜민 기자

일시 11월 21일 오후 8시 **장소** 서울 강남구 LG아트센터 **문의** ☎02-2005-0114

공연

푸른 눈 박연

경기 성남아트센터가 우리나라 최초의 귀화 서양인 ‘박연’을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박연은 이방인이지만 ‘누구보다 조선을 사랑했던 남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공연은 음악·무용·연극이 혼합된 종합예술로 한국의 전통미학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가무극 형식으로 제작됐다. 공연 관계자는 “누구보다 이 땅 조선을 사랑했고, 이 민족에 공헌하는 삶을 살았던 조선의 도깨비 박연이란 인물을 통해 따뜻한 인간애와 더 나아가 인류애를 웃음과 감동으로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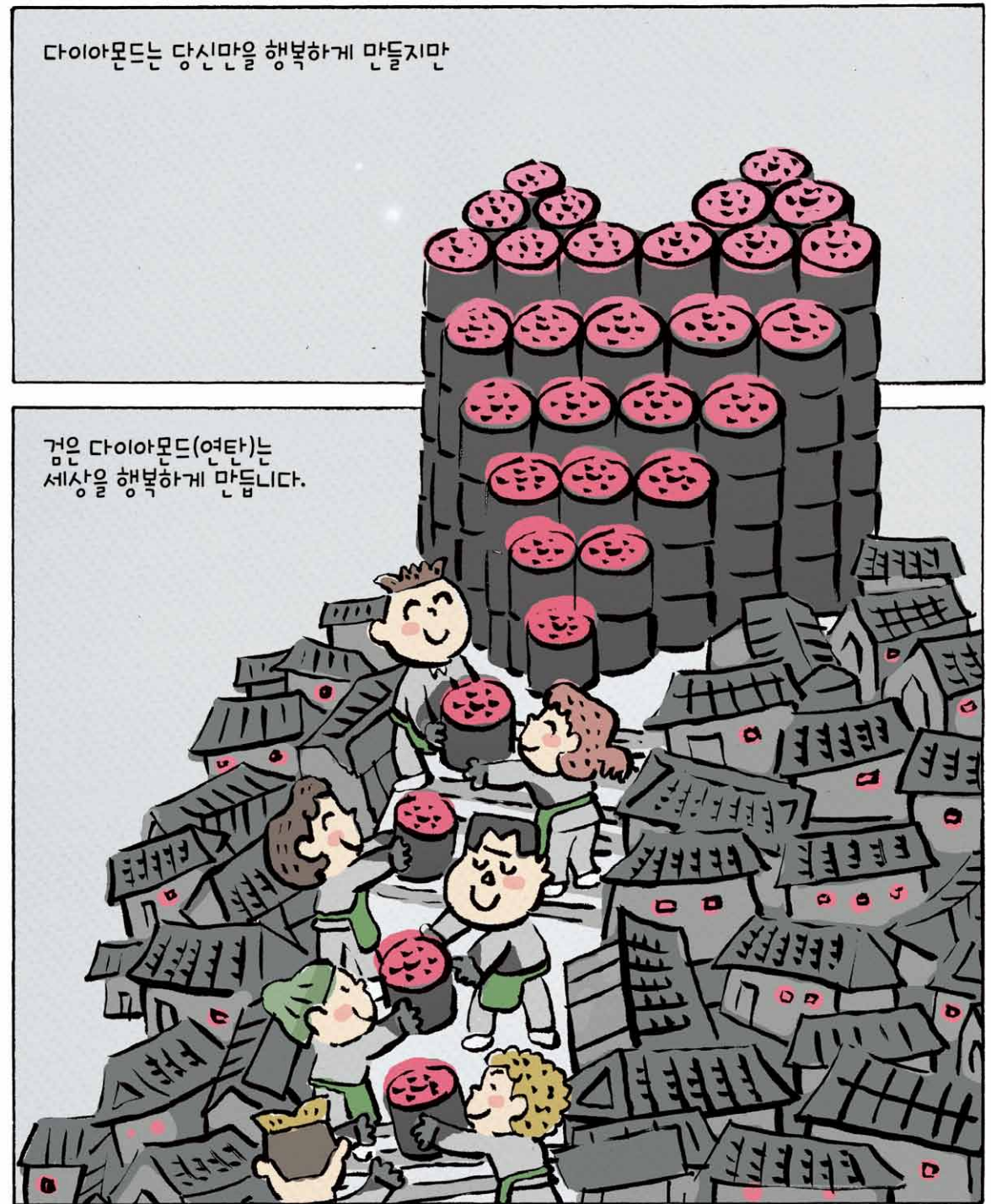
기간 11월 17일까지
장소 경기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02-523-0986

아침의 음악회 “탱고와 춤”

11월 14일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열정적인 탱고 선율과 춤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된다. 이번 공연에서 탱고 콰르텟 ‘코아모러스’는 탱고 음악의 매력을 선보인다. 이 그룹은 2009년 제10회 오사카 국제음악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수준 높은 연주력을 인정받았다. 관객들은 이번 공연에서 영화 〈여인의 향기〉의 삽입곡 ‘포르 우나 카베자(간발의 차이)’와 ‘리베르탱고’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일시 11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경남 김해문화의전당
문의 ☎ 055-320-1234, 1252

검은 다이아몬드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나누면 나눌수록 대한민국은 더 따뜻해집니다.

최선 다하는 삶은 고귀하다

취업 시즌이다.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언제라고 마음 편했을까만 명문대 학생이라도 열 군데 가까이 지원해야 취업이 될까 말까 한 각박한 현실이다. 중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러다 인생의 낙오자가 될까 가슴 졸이며 수십 장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쓴다. 얼마 전 한 학생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번듯한 직장에 꼭 다녀야 하느냐, 행복과 출세는 다른 게 아니냐,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안 되느냐고 비장하게 물었다. 십 년 전만 같았으면 당당하게 대답했을 것이다. 꿈을 좇아 살라고.

쉰을 바라보는 나는 꿈을 좇아 사는 아름다움을 알면서도 차마 그러라고 용기를 북돋워줄 수 없었다. 꿈을 좇다 낙오자가 되거나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을 여럿 보았기 때문이다. 살아보니 꿈을 좇으며 산다고 행복한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은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집이 있어야 사는,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모가 되면 가정과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 책임까지 혹처럼 달라붙는다. 혹부리 영감의 혹처럼 힘들고 괴롭다고 갖다 버릴 수도 없는 혹이다. 한 존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혹이지만 사람은 또 그 혹으로 인해 성숙해지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 어떤 삶을 선택하든 공과 과가 있다. 알고 나니 학생들에게 뭐라 해줄 말이 점점 줄어든다.

나는 농사꾼의 딸이다. 봄이면 씨를 뿌려 여름 내 땀 흘려 가꾸고, 가을이면 수확하고 겨울이면 내년을 기약하며 땅을 쉬게 하고 농군들은 숨을 고르는, 순환을 보며 자랐다. 정성을 기울인 만큼 작물들은 풍성하게 자랐고 땅은 비옥해졌다. 때로 가뭄이나 홍수, 태풍이 휩쓸고 갈 때도 있지만 자연재해를 이겨내는 것도, 견뎌내는 것도 크게 보면 노력의 일부일 뿐이다.

뜻을 품고 그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삶은 절대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내 긍정적인 마인드는 땅으로부터, 농부인 내 부모와 이웃들로부터 연유했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 나는 대개의 삶이 이럴 거라 믿었다. 아니, 삶이란 이러해야 한다고 믿었다.

최근에 무심히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어느 해녀의 말에 번뜩 정신이 들었다. 나를 사로잡은 할머니 해녀의 말은 이러했다.

일러스트 · 강일구

"바다가 친정어매보다 낫수다."

친정어머니는 돈 달라는 자식에게 몇 번 돈을 주고 이내 타박하지만 바다는 끝도 없이 베풀어준다는 것이다. 언제든 들어만 가면 완성품을 내어주는 바다와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땅의 차이를 그날 처음 생각했다. 바다와 땅의 차이는 그뿐 아니다. 친정어머니보다 따스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때로 목숨을 앗아갈 만큼 비정한 것이 바다다. 바다의 방식도 땅의 방식도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절대적이며 유일한 답은 없다는 뜻이다.

남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불안하여 보통의 직장인으로, 보통의 아버지로 사는 것도, 그 길이 답답하여 불안하게 꿈을 좇으며 사는 것도, 그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다를 뿐이다. 땅을 선택하는 자는 그만큼 노력해야 하며, 바다를 선택하는 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친 풍랑과 늘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할 젊은이들 모두가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군가는 앞서 가고 누군가는 뒤처지고 누군가는 전혀 다른 길을 갈지도 모른다. 어떤 삶에든 고통은 따르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삶이든 고귀하지 않으랴. G

글 · 정지아(소설가)